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여자청소년의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과
우울의 관계에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와 신체감시의 매개효과



2020년 2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교육컨설팅협동과정

염 화 숙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여자청소년의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과
우울의 관계에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와 신체감시의 매개효과

지도교수 천성문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2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교육컨설팅협동과정

염 화 숙

염화숙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0년 2월 21일



위 원 장 철 학 박 사 주 동 범



위 원 교 육 학 박 사 박 은 아



위 원 교 육 학 박 사 천 성 문



목 차

국문초록	v
------------	---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문제	8
3. 용어의 정의	10

II. 이론적 배경

1.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	12
2. 우울	16
3.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	20
4. 신체감시	22
5. 우울과 변인들 간의 관계	25

III. 방 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29
2. 측정도구	31
3. 자료분석	35

IV. 결 과

1. 측정변인의 기술통계분석	37
2. 측정변인 간 상관분석	38
3. 측정모형 검증	39
4. 구조모형 검증	42
5.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49

V. 논 의	51
--------------	----

참고문헌	58
------------	----

Abstract	69
----------------	----

부록	71
----------	----

1.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 척도	71
2.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 척도	72
3. 신체감시 척도	73
4. 우울 척도	74

표 목 차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9
표 2. 대인성적 대상화 경험 척도의 문항구성	32
표 3.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 척도의 문항구성	34
표 4. 신체감시 척도의 문항구성	34
표 5. 측정변인의 기술통계 분석	37
표 6. 측정변인 간 상관분석	39
표 7.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41
표 8. 측정모형의 잠재변인과 측정변인 간 모수 추정치	42
표 9.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지수	44
표 10. 최종모형의 경로계수 및 유의도 검증	46
표 11. 간접효과 부트스트래핑 결과	49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모형	9
그림 2. 경쟁모형	9
그림 3. 대상화 이론 모형	26
그림 4. 연구모형의 잠재변인 간 경로(표준화 경로계수)	45
그림 5. 경쟁모형의 잠재변인 간 경로(표준화 경로계수)	45
그림 6. 최종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48



여자청소년의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과 우울의 관계에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와 신체감시의 매개효과

염 화 숙

부경대학교 대학원 교육컨설팅협동과정
지도교수: 천 성 문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Fredrickson과 Roberts(1997)의 대상화 이론을 토대로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와 신체감시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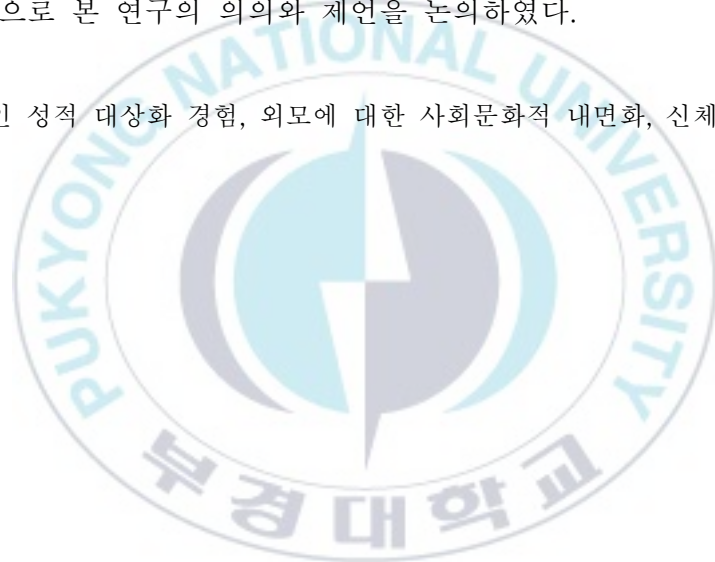
이를 위해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과 우울간의 관계에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와 신체감시의 완전매개를 가정한 모형을 연구모형으로,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직접 영향이 유의한 부분매개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였으며,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 소재하는 중, 고등학교의 재학 중인 여자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수집된 347명의 자료를 SPSS 21.0 프로그램과 Mplus 8.2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χ^2 차이검증 결과 대인성적 대상화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직접 영향이 유의한 부분매개모형이 최종모형으로 선정되었으며, 구체적인 경로를 살펴보면 첫째,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이 우울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하였으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는 우울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이 신체감시를 통해 우울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하였다. 셋째,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를 통해 신체감시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하였으나,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이 신체

감시에 미치는 직접효과도 유의하였다. 넷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는 신체감시를 통해 우울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하였다. 다섯째,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 신체감시를 통해 우울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하였다.

본 연구는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 및 신체감시를 통해서 여자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확인하였다. 특히 대상화 이론에서 가정하는 대상화 관련 변인들의 인과적 관계가 우리나라 여자청소년들을 설명하는 데에도 적합하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내면화, 신체감시, 우울



I. 서론

본 연구는 여자청소년의 우울에 관련이 있는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이 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문제, 용어의 정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청소년기는 정신건강 문제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시기이다. 청소년기는 인간발달의 연속선상에서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로 성호르몬의 분비 증가와 이차성장이 나타나게 되어 신체적, 성적 발달이 촉진되고, 사회적으로 다양한 대인관계를 통해 사회화 과정을 습득해 나가게 되며, 정신적으로는 성숙한 주체성을 정립해 가는 결정적인 시기다(류은정 외, 2006). 또한, 청소년은 빠르게 변하는 자신의 신체적 외모에 대한 놀라움, 불안, 열등감, 자존감 등을 가지게 되며, 외모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Dacey & Kenny, 1994). 그러나 신체적으로는 빠른 성장을 하지만 정신적 성숙은 그에 미치지 못하여 불균형을 이루기 쉽고(이종화, 2008) 이로 인한 다양한 내, 외적 변화를 대처하는데 어려움에 부딪칠 가능성이 증가하여 여러 가지 정신장애에 대한 취약성이 높고, 우울 증에 걸리는 빈도가 높다(강향숙, 박은진, 정지영, 2014; 오윤선, 2008). 즉, 청소년의 발달시기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변화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정신장애에 발병이 높아질 수 있다.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 중에서도 우울은 개인의 인지와 판단, 대인관계 등에 걸쳐 광범위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Carlson & Cantwell, 1980) 청소년기 우울은 발달 특성상 성인보다 피해가 더 심각하며, 청소년기에 우울을 겪은 경우, 초기 성인기에도 여전히 우울 증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Anheier & Kendal, 2000). 또한 성인기와 달리 우울 감정이 감추어진 형태로 나타나서 매사가 부정적이거나 반항적으로 되고, 약물 사용, 가출 및 폭력, 신체 증상호소, 성적 저하로 위장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김현정, 2014; 이선주, 하은혜, 2010). 실제로 최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조사한 청소년건강행태조사(2019)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우울 경험률이 2015년 23.6%, 2016년 25.5%, 2017년 25.1%로 나타났고 2018년에는 27.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중 2명 이상이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라 남자청소년 21.1%, 여자청소년 33.6%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정신장애 중에서도 우울의 발병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다른 증상으로 위장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청소년기 발달 및 적응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쳐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성별에 따라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우울 발생비율이 현저히 높은 점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Fredrickson과 Roberts(1997)는 남성에 비해 여성들의 심리적 장애 발생률의 높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대상화 이론을 제시하였다. 대상화 이론에 따르면 성적 대상화 경험이 어떻게 여성의 심리적 문제들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며, 여성들이 우울, 불안, 섭식장애, 성기능장애 등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상화란 신체를 자신이 아닌 제 삼자의 객관적인 관찰자의 시선

으로 응시하고 이러한 관찰자의 관점을 내면화함으로써, 타인에게 평가받는 대상으로 자신의 신체를 지각하는 것을 의미하며, 여성을 향한 성적인 응시나 성적 접근, 또는 미디어를 통한 노출 등을 통해 자신의 신체가 성적 대상으로 평가받고 관찰되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을 성적 대상화 경험이라고 한다. 여성이 성적 대상화 경험을 하게 되면 자신의 신체 일부 혹은 성적 기능이 전체 인격으로부터 분리되어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 존재하는 단순한 도구로 여겨지게 되는데, 반복적인 성적 대상화 경험은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관찰자의 관점으로 내면화하여 평가받는 대상으로 자각하게 된다. 이로 인해 자신의 신체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평가하는 신체감시가 이루어지며, 이상적 외모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불안, 신체수치심, 좌절감, 등 부정적인 심리적 경험을 하게 한다. 이러한 부정적인 심리적 경험은 이후 섭식 장애나 우울증, 성기능 장애 등의 심리적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Fredrickson & Roberts, 1997). 이와 같이 여성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대인관계나, 미디어를 통해 성적 대상화 경험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다양한 부정적 심리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여성의 정신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이론을 근거로 하여 여자청소년의 우울을 설명하고자 한다.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은 성적인 신체 특성이 생겨나는 사춘기에 여자청소년에게서 주로 형성되며, 자신의 외모에 대해 끊임없이 의식하고 감시하며 통제하기 시작한다(김윤, 2007). 여자청소년들은 신체적인 변화와 성적인 성숙으로 타인의 응시나 신체 외모에 대한 피드백으로 인해 대상화가 일어나게 되고(강향숙, 박은진, 정지영, 2014) 자신의 신체와 외모에 대해서 지대하게 관심과 함께 자신의 외모에 대해 스스로 평가, 감시를 하며, 마른 체형을 선호하는 사회 분위기로 인해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족으로 자신감을 잃고 위축되기 쉽다. 또한 자신의 외모가 타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우울을 경험하기 쉽고(이희연, 하은혜, 2008) 더 나아가 학업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서수경, 2017). 이와 관련하여 최근 보도 자료들을 살펴보면 여자청소년들의 외모에 대한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친구들 사진을 보면서 자신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을 자주 접할수록 외모에 대한 판단 기준이 높아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고, 거울 앞에 서면 유독 커 보이는 점이나 잡티, 작은 눈, 낮은 코를 보며 열등감을 갖기도 한다(아시아경제, 2019.11.06.). 그 뿐만 아니라 등교 때 마다 화장 화장과 머리손질을 하는데 시간이 걸려 지각을 하거나 자신이 만족하지 못하면 학교도 가기 싫어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경기일보, 2019.12.03.). 이와 같이 여자청소년들은 사춘기 시기부터 경험하게 되는 성적 대상화 경험의 부정적 결과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비현실적인 기준에 맞춰 자신의 신체적 외모를 평가, 감시하게 되고 결국 우울을 경험하기 쉽다는 것을 예상 할 수 있다.

대인 성적 대상화를 경험하는 경로에는 대인간에 발생하는 외모 평가, 성적 응시와 같은 형태와 미디어를 통한 사회적 성적 대상화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청소년기에는 가족, 또래 친구들의 평가에 민감하므로 또래 집단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김은혜, 2013). 특히, 여자청소년의 식이조절, 섭식장애 행동에는 어머니와 자매의 영향이 가장 크게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윤, 2007). 선행연구에 따르면 과체중인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아들보다 딸의 체중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다이어트를 실시하도록 권유하였으며(Smolak, Levine, & Thompson, 2001), 과체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만을 지각하는 경향이 높아 체중을 줄이도록 요구하고 있었다(김윤, 2007). 그 외에 또래 집단의 평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신의 외모와 신체 기술, 행동 등을 친구들과 비교하며 자신을 확인하고,

매력적인 외모로 인기를 얻어 또래집단에 수용되고 싶어 한다(Dunkley, Wertheim, & Paxton, 2001). 청소년의 외모와 관련하여 고등학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외모에 대한 친구들의 놀림을 자주 경험한 학생은 다이어트를 실천하고 있었고, 외모와 관련된 주제에 더 많이 몰두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하였다(Paxton, 1999). 따라서 청소년 시기의 가족 및 또래와 같은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이 청소년 자신의 외모에 대한 평가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타인이나 사회의 가치와 평가는 개인의 내면화 과정을 거쳐 자신의 가치를 수용되게 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 역시 사회화과정을 통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나 고정관념을 받아들여 내면화하게 되며, 자신의 가치로 수용한다. 내면화된 가치는 사회적인 기준에 도달해야 한다는 신념을 형성하게 된다(McKinley & Hyde, 1996).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는 청소년들이 가족이나 친구, 대중매체와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들을 통해 이상적인 외모를 규범화하여 자기 가치로 내면화하는 것으로, TV, 잡지와 같은 매스미디어를 통해 비추어지는 날씬하고 마른 여성의 신체상을 이상적인 것으로 규정하여 여성들이 비현실적인 신체상을 자신의 가치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황인지, 2017).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는 이상적인 외모 상을 습득하고 도달해야 할 자신의 기준으로 삼게 만들며 이를 성취하기 위해 의식적 무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만든다(신호정, 2002). 따라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인식하고 내면화할수록 이상화된 신체와 자신의 신체를 지속해서 비교, 감시하게 되며(Sinclair, 2006),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외모에 몰두하며, 다양한 외모관리행동에 집착하게 된다(Stice & Thompson, 2001). 국내연구에서도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가 높을수록 신체감시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장지원, 2012; 황인지, 2017),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가 신체감시를 야기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체감시란 여성들이 객체(대상)로서 자신의 신체를 바라보고 느끼는 심리적 경험을 의미하는데(McKinley & Hyde, 1996),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주체적인 관점이 아닌 제 삼자의 관점으로 자신의 외모를 감시, 비교, 평가,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Stice & Thompson, 2001). 연구에 따르면 신체감시가 높을수록 신체에 대한 불안을 느껴 식사를 제한적으로 하거나 섭식장애를 증가시킨다고 하였으며(김시연, 서영석, 2012), 여자청소년에게서 신체감시는 수치심과 함께 섭식장애 외에도 수행불안 및 학습몰입의 결여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시연, 서영석, 2011). 따라서 지속적인 신체감시는 수치심과 같은 부정적 정서와 함께 섭식장애 및 몰입 어려움과 같은 행동적 문제들을 야기하고 청소년기 우울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예측할 수 있다.

종합해보면, 여자청소년의 주위 사람들로 부터 받게 되는 성적 대상화 경험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를(최윤정, 2016) 야기하고 이는 타인의 관점으로 자기 신체를 지속해서 평가하는 신체감시를 통해 결과적으로 우울을 야기하게 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즉 성적 대상화 경험과 우울의 관계에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와 신체감시가 매개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와 신체감시가 완전 매개하는 모형과 성적 대상화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한 부분 매개모형을 설정하여 비교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울 발생의 성별차가 존재하고 여자청소년의 우울발생률이 높은 것과 관련해서 Fredrickson과 Roberts(1997)의 대상화 이론을 토대로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경로를 거쳐 우울이 발생하게 되는지 변인들 간의 일련의 인과 관계를 검증하는데 있다. 대상

화 이론과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 신체감시를 매개로 하여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여자청소년의 우울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성적 대상화가 일어나는 시기인 여자청소년에게 우울을 예방하기 위한 상담전략을 세우고, 우울예방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필요성과 목적을 바탕으로 여자청소년의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 신체감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 연구문제 1. 대상화 경험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를 매개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2. 대상화 경험은 신체감시를 매개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3. 대상화 경험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를 매개로 신체감시에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4.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는 신체감시를 매개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5.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와 신체감시의 매개효과가 있는가?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 신체감시 등의 심리 내적 변인들을 통해 어떻게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고자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설정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 외에 경쟁모형을 설정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설정한 경쟁모형은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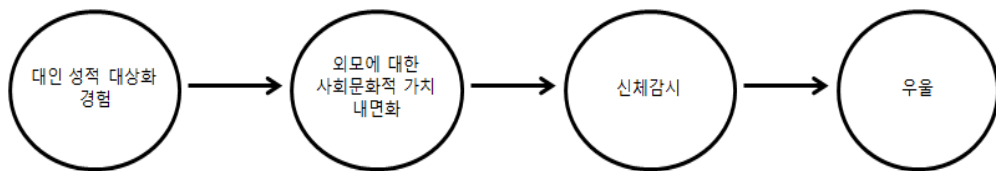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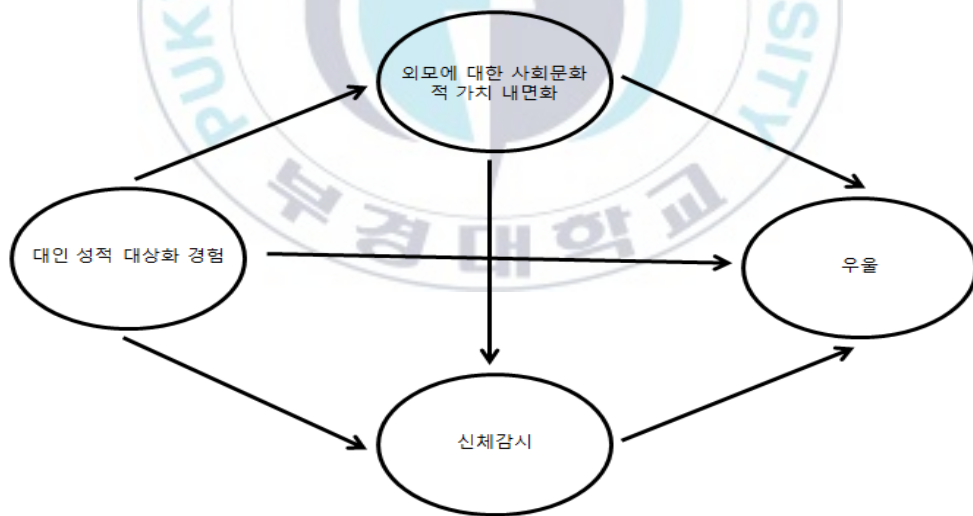


그림 2. 경쟁모형

3. 용어의 정의

가.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

성적 대상화란 남성이 여성을 바라볼 때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지각하여 여성의 신체나 신체의 일부분만을 중점으로 두는 것을 의미한다(Fredrickson & Roberts, 1997).

본 연구에서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은 Kozee, Tylka, Augustus-Horvath와 Denchik(2007)이 개발한 대인 성적 대상화 척도(Interpersonal Sexual Objectification)를 김시연과 서영석(2010)이 번안한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 척도에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나. 우울

우울은 슬픈 감정, 외로움의 정서적 증상 및 무가치함, 죄의식, 사고력 및 주의력의 저하, 자살에 대한 생각과 같은 인지적 증상 그리고 식욕감퇴, 불면증, 체중감소나 피로감 등의 생리적 증상을 포함하는 일련의 심리상태를 의미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7).

본 연구에서는 우울은 Beck(1961)이 개발한 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를 이영호와 송종용(1991)이 번안, 타당화한 우울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는 TV와 잡지와 같은 매스미디어를 통해 비추어지는 날씬하고 마른 여성의 신체상을 이상적인 것으로 규정하여 여성들이 비현실적인 신체상을 자신의 가치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황인지, 2017).

본 연구에서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는 Heinberg, Thompson과 Stormer(1995)가 개발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 척도(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를 송경자와 이미숙(2009)이 청소년 대상 연구를 위해 요인분석을 통해 수정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척도의 하위요인인 내면화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라. 신체감시

신체감시란 여성들이 객체(대상)로서 자신의 신체를 바라보고 느끼는 심리적 경험을 의미한다(McKinley, 1995).

본 연구에서 신체감시는 Lindber, Hyce와 McKinley(2006)가 개발한 대상화된 신체의식 척도(The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Scales for Youth)를 구자연(2009)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청소년용 대상화된 신체의식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II.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본 연구에 포함된 주요 변인들 즉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 신체감시, 여자청소년의 우울과 관련된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1.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

가. 대상화 이론

대상화 이론(objectification theory)이란 성적인 평가나 접근 등을 반복적으로 경험한 여성들이 어떠한 과정으로 심리적 문제를 겪게 되는지를 설명한 것을 의미한다(Fredrickson & Roberts, 1997). 대상화 이론은 여성 사회학자인 Fredrickson과 Roberts(1997)가 제안한 이론으로 여성의 신체를 심리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역사적, 정치적 차원에 의해서 구성되는 사회적 산물임을 전제로 하여 접근하고자 하였다(김윤, 2007; 손은정, 2006). 여성의 신체외모가 가지는 사회적 의미를 중심으로 정신건강을 조망하고 외모를 강조하는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개인이 외모와 관련하여 사회화되는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으며, 외모에 몰두하는 사회적 현상과 영향을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김은혜, 2013).

대상화란 신체를 자신이 아닌 제 삼자의 객관적인 관찰자의 시선으로 응시하고 이러한 관찰자의 관점을 내면화함으로써, 타인에게 평가받는 대상

으로 자신의 신체를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상화 이론에서 대상화는 여성을 성적인 특성 또는 신체적인 매력에 의해 성적인 대상으로 지각하는 것을 말하며, 여성을 향한 성적인 응시나 성적 접근, 또는 매체를 통한 노출 등을 통해 자신의 신체가 성적인 대상으로 평가받고 관찰되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을 성적 대상화 경험 이라고 한다(Fredrickson & Roberts, 1997).

Fredrickson과 Roberts(1997)에 따르면 성적 대상화는 보통 세 가지 방식으로 발생한다. 첫째, 대인관계나 사회적 장면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성적 응시의 경험이다. 여성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나 일상생활 속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마주치는 사회적 장면에서 성적 응시를 경험할 수 있다. 둘째, 대인관계나 사회적 상황들을 묘사하는 시각 미디어에 의한 간접적인 성적 응시의 경험이다. 이는 시각 미디어 속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의해 신체 평가당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성적 응시를 의미한다. 셋째, 여성의 신체와 신체의 일부분을 은밀히 강조하는 시각 미디어를 통한 응시의 경험을 반영한다. 여성은 여성의 신체를 강조하는 음악 프로그램이나 광고 등의 시각 미디어를 통해 성적 응시를 경험할 수 있다.

여성들은 이러한 성적 대상화 경험으로 인해 자신의 신체적 기준이 자신의 가치가 평가받게 된다고 스스로 자각하게 되고, 관찰자의 관점으로 자기 안으로 내면화함으로써 자기를 대상화하게 되며, 자신의 신체를 관찰하고 통제하는 신체감시를 불러일으키게 된다(김진이 2018). 이로 인해 여성들은 부적응적인 상태를 경험하게 되어, 불안감이나 수치심 등을 경험하게 되고, 자신의 동기나 내적 신체 상태를 잘 인식하지 못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우울증, 섭식장애, 성기능장애와 같은 심리적 장애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된다(Fredrickson & Roberts, 1997).

종합해보면 대상화 이론에서는 여성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대인관계에서 성적인 응시나 접근들과 미디어 노출에 의해 성적 대상화 경험을 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여성들은 자신을 관찰자의 관점으로 자신을 평가, 감시, 통제하는 신체감시를 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들이 대인 관계에서의 성적인 응시나 성적인 접근, 미디어를 통한 노출 등을 통해서 자신의 신체가 성적인 대상으로 관찰되고 평가받는 느낌의 경험을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이라고 정의하며, 이러한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으로 인해 여성들은 부적응적인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데, 수치심, 불안 등 심리적으로 다양한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섭식장애, 우울증, 성기능장애와 같은 심리적 장애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이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나.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

성적 대상화란 남성이 여성을 바라볼 때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지각하여 여성의 신체나 신체의 일부분만을 중점으로 두는 것을 의미한다 (Fredrickson & Roberts, 1997). Fredrickson와 Roberts(1997)는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을 신체에 대한 평가와 원하지 않는 노골적인 성적 접근로 보았다. 첫째, 신체에 대한 평가는 여성이 연인, 가족, 친구, 아는 사람 등 주변 대인관계 내에서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응시, 결눈질, 평가 등을 당한 경험을 의미한다. 둘째, 원하지 않는 노골적인 성적 접근은 여성이 연인, 가족, 친구, 아는 사람 등 주변 대인관계 내에서 자신의 신체에 모멸적인 성적코멘트 혹은 행위를 당한 경험을 의미한다. 대상화 경험은 성적인 신체 특성이 생겨나는 사춘기의 청소년기에 주로 형성되며, 성호르몬이 분비되어 성

인의 몸매로 변화되어갈 때 자신의 신체를 바라보는 타인의 시선과 언어적, 비언어적 평가 때문에 대상화를 경험한다(김윤, 2007; Kittler, 2003). 이 시기의 여자청소년들은 사회적으로 인정욕구가 아주 높으며, 외모와 관련된 사회적 인식과 고정관념에 매우 민감한 시기이다(장희순, 2007). 그러므로 타인의 노골적인 시선이나 성적코멘트는 심리적 정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나 형제자매의 외모에 대해 지적, 놀림 등과 또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외모에 대한 놀림이나 비판, 대화 등은 자기를 대상화하고(김시연, 서영석, 2012; Keery, Boutelle, Berg, & Thompson, 2005), 미디어를 통한 많은 정보의 노출에 지속할 경우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을 내면화하게 되고 이상적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이 신체에 대한 불만족을 가지게 하여 제한된 식이와 섭식장애의 발병 등 부정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tice, 2002).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Leung(1997)은 14~19세 여자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으로 인해 섭식장애를 가진 여학생이 상당수인 것으로 보고하였다(정은혜, 2010). 국내연구에서도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이 섭식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시연, 백근영, 서영석, 2010). 여고생의 성형의도와 관련된 연구에서도 성적 대상화 경험 수준이 높을수록 성형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장지원, 2012). 또한 여고생을 대상으로 음악방송 노출을 통한 간접적 경로를 통한 성적대상화 경험이 섭식행동, 학습몰입 및 수행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시연, 서영석, 2011). 성적 대상화 경험이 외모에 대한 태도와 신체수치심을 통해 체중 조절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성적대상화 경험이 외모에 대한 태도와 신체수치심을 통해 피부 관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희정, 2016). 그 외에도 대상화 경험이 여자청소년의 정

신건강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은혜, 2013), 남자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또래 대상화 경험의 정도가 클수록 신체불만족이 높아져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다고 하였다(김진이, 2018). 이 또한 여자청소년이 대상화 경험으로 인한 부정적 정서를 가지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종합해보면 성적 대상화 경험은 여성에게 부정적인 심리적 사회적 부정적응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며, 특히 성적 대상화가 시작되는 여자청소년에게 있어 외모에 대해 민감한 시기이므로 주위 사람들을 통한 성적 대상화 경험은 여자청소년의 심리적 문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자청소년이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을 반복적으로 경험 할 경우 심리 사회적으로 부적응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 불안, 신체 불만족 등으로 인해 우울이 높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2. 우울

가. 우울의 개념

우울(Depression)이란 일상생활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경험할 수 있는 정서들 중 하나를 지칭하는 용어로 개인의 인지와 판단, 대인관계 등에 걸쳐 광범위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서를 의미한다(Calson & Cantwell, 1980). 우울은 ‘심리적 독감’이라고 불릴 만큼 흔한 장애이기도 하지만(정하나, 2014), 그 정도에 따라서 단순히 슬픈 기분을 비롯하여 무력감, 죄책감,

상실감, 절망감 등과 같은 고통스러운 정서적 상태까지 포함하며(권석만, 2012), 식욕감퇴, 불면증, 체중감소나 피로감 등의 생리적 증상을 포함한다(America Psychiatric Association, 1987). 이와 같이 우울은 다양한 증상들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울은 가벼운 우울한 기분과 의욕의 저하 등을 경험하는 경미한 상태에서 서부터 일상생활의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심각한 장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임상적 양상으로 나타난다(김은정, 오경자, 하은혜, 1999). 이는 건강한 사람도 흔히 경험할 수 있는 부정적 정서로(강석기, 고수현, 2012), 정서적 증상으로 슬픔, 외로움, 공허감, 흥미와 기쁨상실 등과 인지적 증상인 자기 비난, 죄의식, 무가치감, 사고력 및 주의력 저하 등이 불면증, 식욕감퇴, 체중감소, 피로감 등의 생리적 증상과 동반되어 나타난다(Beck, 1974). 이러한 우울이 높은 사람들은 부정적 정서와 인지 저하로 낮은 자존감을 가지며, 문제해결 능력이 비효율적으로 작용하여(정경아, 2016; Jylha & Isometsa, 2006) 우울이 지속될 경우 일상생활에서의 대인관계와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자살까지 초래하게 된다(권석만, 2012). 따라서 우울의 증상은 경미한 상태에서 심각한 장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며, 인지적 증상과 생리적 증상이 동반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종합해보면, 우울은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정서들 중 하나로 개인의 인지와 판단, 대인관계 등에 걸쳐 광범위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서를 말한다(신진아, 2016; Calson & Cantwell, 1980). 이러한 우울이 높아지면 일상생활의 문제가 심각할 뿐 아니라 자살까지 초래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을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정서이지만 다양한 증상들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부정적 정서로 정의하며,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한다.

나. 청소년 우울

청소년기는 흔히 ‘질풍노도’로 표현되는 부적응적 시기로 시련, 뿐만 아니라 정서적 동요, 인생의 결정적인 시기로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최옥주, 2017). 이 시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전환하는 발달단계에 있으며, 신체적인 변화와 성적인 성숙으로 대상화가 일어나는 시기이기도 하다(강향숙, 박은진, 정지영, 2014). 이때 여자청소년들은 자신의 신체와 외모에 대해서 지대하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인지, 정서적 발달로 인해 자신을 성찰하게 됨으로써 부정적 자기평가나 자기비판이 가능해지고, 자신의 정서적 감정에 대한 지각과 타인의 정서적 감정을 지각하는 능력이 성숙해지면서(김은정, 오경자, 1992) 자신의 외모에 대해 스스로 평가, 감시를 하게 되고 마른 체형을 선호하는 사회 분위기로 인해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족을 지각하게 되어 자신감을 잃고 위축되기 쉬우며, 자신의 외모가 타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우울을 경험하게 된다(이희연, 하은혜, 2008). 따라서 청소년기는 급성장으로 신체 변화와 성적인 성숙으로 대상화가 일어나는 시기이므로 여자청소년은 자신의 외모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인지, 정서적인 발달로 자신의 외모를 스스로 평가, 감시하여, 타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거라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며, 결국에는 우울을 경험하게 되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청소년기의 우울은 ‘가면우울(masked depression)’이라 부른다(Davis, 2005). 가면우울이란 우울한 감정이 전혀 표현되지 않고 몸이 아프다거나

행동이 달라지는 등의 다른 증상들로만 나타나며 우울감을 느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증상들로 인해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최옥주, 2017). 청소년기 우울은 지나치게 민감하고, 까다로운 기분상태를 보이는 점에서 아동기 우울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APA, 2013). 아동기 우울의 주된 증상은 우울한 모습, 정신 운동 초조, 공포증, 이별불안, 환각 등으로 나타난다(Robert, Lewinsohn, & Seeley, 1995). 반면 청소년 우울은 우울 감정이 감추어진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매사에 부정적이거나 반항적이 되고(APA, 2013) 게임, 인터넷 중독, 학업에 대한 흥미 저하, 자포자기의 사고방식, 자신감 저하, 성적 문란, 약물중독, 음주, 가출 등의 부정적 행동과 심하게는 자살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이후 성인기 우울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이순희, 허만세, 2015). 따라서 청소년기 우울은 다른 시기의 우울과 증상이 다르게 매사에 부정적이거나 반항적으로 나타나며, 심하게는 자살까지 이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기 우울의 특징은 아동기의 증상과 다르게 나타나고 성인들의 우울증상인 슬프거나 낙담 같은 기분과도 차이를 보이며(APA, 2013), 자신의 우울을 잘 느끼지 못하고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김종남, 정지영, 2011; 신진아, 2016) 진단이 어렵고 방치될 가능성이 높으며, 성인 우울에 비해 더 만성적이고 재발 가능성이 높다(Hauenstein, 2003). 더불어 신체성장을 방해하고, 다른 장애로의 전환위험이 높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된다(김현정, 2014)). 선행연구에 따르면 우울과 불안이 높으면 스마트폰 중독 수준을 높인다고 나타났으며(정경아, 2016), 부모의 양육태도를 매개로 하여 우울과 자살생각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우울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높다고 나타났다(류희정, 2010). 또한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또래애착을 형성하기 어렵고, 또래애착 형성이 되지 않을수록 충동성의 수준이 높아져 사이버 비행이 증가한다고 나타났다(신

진아, 2016). 이처럼 청소년기 우울은 진단이 어려우며, 방치될 가능성이 높아 다른 장애로의 전환 위험이 높아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종합해보면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서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로 여자청소년은 자신의 신체외모에 관심이 많으며, 타인에 의해 부정적 경험을 하게 되는 부적응적 시기로 다른 시기에 비해 우울을 경험할 확률이 높다. 그러나 청소년의 우울증상은 성장과정에서 겪는 사춘기 현상으로만 여기는 경우가 많아 방치될 가능성이 높고 이 시기의 발달과제인 학업성취와 또래 관계 증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우울은 청소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성적 대상화 경험과 관련하여 여자청소년의 우울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3.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

내면화란 가족, 친구 미디어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로 인해 개인이 사회문화적으로 이상적인 신체기준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학습됨에 따라 비현실적인 신체기준을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수용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신효정, 2002; HeinBerg et al., 1995).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란 TV와 잡지와 같은 매스미디어를 통해 비추어지는 날씬하고 마른 여성의 신체상을 이상적인 것으로 규정하여 여성들이 비현실적인 신체상을 자신의 가치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황인지, 2017).

인간은 자신이 속한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동화와 선별(selective)과정을 통해 사회화되어 간다(김은혜, 2013). 사회화 과정은 모방, 모델링, 역할 학습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자신이 소속된 사회의

문화와 관습을 내면화하고, 행동양식을 습득하므로 인지적인 성향이나 가치, 태도, 문화 등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발달하며,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 역시 소속된 사회의 대인관계 및 대중매체를 통해서 영향을 받으며 발달한다(김은혜, 2013). 부모와 형제자매의 외모에 대한 평가는 신체만족도 및 사회문화적 규준의 내면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Keery et al., 2005) 최근에는 가족이나 친구 등의 전통적인 기제 외에 외모와 관련하여 청소년의 인식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주요 기제는 대중매체를 들 수 있다(김정민, 한근희, 2008; HeinBerg et al., 1995). 따라서 청소년들은 많은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습득하고 내면화하며 행동양식을 만들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가족이나 친구 또는 대중매체가 청소년의 인식이나 태도 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현대사회 청소년들은 광고나 방송, 출판, 영화(윤혜민, 2017) 등의 대중매체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날씬하고 멋진, 특정한 신체외모를 수용하고 이를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기준으로 인식하여 자신의 가치로 내면화하도록 만들며(신효정, 2002), 대중매체의 노출은 마른 체형을 이상적인 외모로 내면화시키며, 신체불만족과 다이어트, 섭식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미영, 1997). “마른 몸매”를 강조하는 TV프로그램과 잡지가 여고생들이 여대생보다 신체불만족과 다이어트 행동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최윤정, 2005).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압력은 개인에게 특정한 사회문화 속에서 선호되는 신체외모에 대한 이미지를 내적인 이상(an ideal)으로 삼게 만드는 외적인 힘을 의미하는데 이상적인 신체외모에 대한 기준은 대부분 가공된 것으로 일반인이 성취하기가 쉽지 않다(김은혜, 2013).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내면화한 많은 청소년들이 외모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고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며 힘들

어 하고 있다(신효정, 2002).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장지원(2012)의 여자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내면화하고 신체감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내면화하게 되면 신체감시에 영향을 주며,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는 신체감시를 매개하여 섭식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시연 외, 2010). 또 다른 연구에서는 여자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가 신체존중감을 통해 섭식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진주, 2013). 이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로 인해 감시하는 행동을 하게 되고, 또한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합해보면, 청소년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문화 환경 속에서 행동양식을 습득하게 되는데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는 그 사회문화 환경 속에서의 가족, 또래친구, 대중매체 등으로 인해 외모에 대한 이상적 기준을 내면화하게 된다(한경, 2013). 그러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로 인한 이상적 기준은 대부분 가공된 것이라 여자청소년들이 성취하기가 어려운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며,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신체감시 행동 및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4. 신체감시

신체감시(body surveillance)란 자신의 신체를 대상화하여 타인의 시선으로 마치 감시하듯이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Spitzack, 1990). 즉 서구화된

사회는 여성의 이상적인 외모에 과도하게 집중하며 여성의 몸을 타인의 즐거움과 흥미를 위해 이용한다(선안남, 2008). 이러한 사회·문화적 배경 속에서 자란 여성은 자신의 신체에 쏟아지는 사회적 압력을 인식하고 신체의 특성 중 외모에 더 큰 가치를 두고, 관찰자의 시선으로 스스로의 신체를 바라보게 되고(최서연, 2016), 관찰자의 시각으로 외모에 대한 습관적 신체 감시를 유발하는 자아의식(self-consciousness)이 형성된다(Fredrickson, 1998). 신체감시는 자신의 신체를 사회문화적 기준에 맞추려 하고, 신체에 대해 타인의 부정적 평가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다(한경, 2013). 여성은 자신과 자기 신체의 관계를 마치 ‘외부관찰자’와 ‘객체’처럼 형성하고, 이 같은 신체감시를 자기 사랑, 건강, 개인적인 성취와 연관을 짓는다(Spitzack, 1990).

Fredrickson과 Roberts(1997)에 따르면 여성의 사회경제적 성공이 그들의 외모로 결정된다는 다양한 증거들에 따라 여성들은 그들의 외모의 영향력을 당연히 기대하게 되고 스스로 자신의 감시자가 된다(황인지, 2017). 신체적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라는 미묘한 외부의 압력에 노출되는 경험은 여성들이 선택적으로 또는 자연스럽게 외모를 향상하는 노력을 하도록 만든다(Costanzo, 1992; Fredrickson & Roberts, 1997). 그러나 감수성이 예민한 여자청소년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장이 완성되지 않은 시기이고 외모에 대한 자의식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태며, 사회적 인정에 대한 욕구가 강렬해 질 뿐만 아니라 자신의 외모나 행동, 생각, 감정에 대한 자기-자각(self-awareness) 능력이 급증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타인에게 어떻게 보이는가에 집착하게 되고, 타인의 시선으로 감시하듯이 자신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자신의 신체를 비교 및 평가하게 되며(윤은영, 2005; 장지원, 2012), 자신이 타인의 기대에 어긋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이 증가하게 된다(윤은영, 2005).

Mckinley와 Hyde(1996)의 연구에서 신체감시(백근영, 서영석, 2011)가 높을수록 신체 존중감이 낮아지고 이는 곧 식사를 제한적으로 하거나 섭식장애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밝혔다(최정윤, 2016). 또한, 자신의 외모와 이상적인 미의 기준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체가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때 열등감, 불만, 우울감, 수치심뿐 아니라 신체 불만족을 통해 섭식장애, 성형의도, 취업 스트레스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선행연구 결과 입증된 바 있다(최정윤, 2016). 국내연구에서도 여자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체감시와 신체수치심이 높으면 신체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어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하거나 성형의도가 높아진다고 나타났으며(장지원, 2012), 여고생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는 신체감시행동으로 인해 자신의 신체에 대해 더 많은 수치심을 경험하게 되어 결국 부정적인 섭식행동과 수행불안 및 학습몰입의 결여를 경험하게 된다고 나타났다(김시연, 서영석, 2011). 이처럼 지속적인 신체감시는 자신이 타인에게 어떻게 보이는가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타인의 기대에 어긋나게 될까봐 불안과 두려움으로 부적적인 정서를 가지며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합해보면, 신체감시는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타인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신체를 감시, 평가하며 특히 여자청소년의 경우 사회적으로 외모에 대한 압력이 남자에 비해 강하며 타인에 평가에 민감한 여자청소년의 경우 신체감시 행동이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5. 우울과 변인들 간의 관계

성적인 대상화가 흔한 문화 안에서 관찰자의 관점을 내면화함으로써 자기 대상화를 가져오게 되며(정은혜, 박경, 2009) 자기 대상화는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훨씬 자주 보이는 우울과 관련되어 연구된 개념이기 때문에 자기 대상화와 우울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거의 모두 여성들을 대상(김정선, 2007)으로 이루어져 왔다. Miner-Rubino, Twenge와 Fredrickson(2002)은 자기 대상화가 신체에 대한 수치심이나 사회적 불안, 정서적 불안정성, 우울과 정적인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였고 Mueglenkamp와 Saris-Baglama(2002)는 자기 대상화와 섭식장애와 관련된 연구에서 자기 대상화가 우울, 제한식이, 섭식장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신체 내부 인식과 감정 인식의 저하, 감정 표현 불능을 매개로 우울을 유발한다고 보고(김정선, 2007)하였다. 높은 자기 대상화 수준을 보이는 여성은 낮은 여성보다 더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가지며, 외모에 대한 칭찬을 들었을 때 우울한 기분에서 쉽게 빠져나오는 것으로 보고하였다(Fea & Brannon, 2006).

여성들은 성적인 응시나 성적인 접근, 또는 매체를 통한 노출 등을 통해 자신의 신체가 성적인 대상으로써 평가받고 관찰되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를 성적 대상화 경험이라고 하며, 성적 대상화 경험으로 인해 여성들은 신체적인 기준에 의해 자신의 가치가 평가된다고 여기게 되며, 스스로를 자각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받게 된다. 더하여 이러한 제 3자의 관점을 여성이 자기 안으로 내면화함으로써 자기를 대상화하게 되고 스스로의 신체를 관찰하고 통제하는 신체감시를 불러일으킨다(김진이, 2018). 이로 인해 여성들은 부적응적인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데, 불안감이나 수치심을 경험하게 되고, 자신의 동기나 내적 신체 상태를 잘 인식하지 못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섭식장애, 우울증, 성기능장애와 같은 심리적 장애의 위험성이 높

아지게 된다(Fredrickson & Roberts, 1997). 이러한 과정을 그림 3에 도식화하여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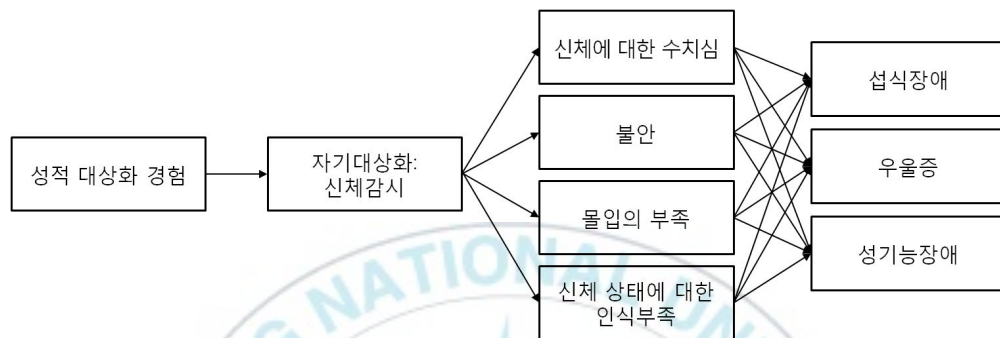


그림 3. 대상화 이론 모형 (Fredrickson & Roerts, 1997)

대상화 이론에 따르면 여성들은 성적인 시선과 접근에 노출되면서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지나치게 신경 쓰게 되고 결국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는데, 여성이 성적 접근과 시선 등 대상화 경험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사회에서 이상적으로 여기는 여성의 외모를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고 이를 기준으로 자신의 신체를 비교하고 감시하게 된다고 가정한다(Fredrickson & Roberts, 1997). 선행연구에서는 성적 대상화 경험과 신체감시의 관계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가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orry & Staska, 2001; Mitchell & Mazzeo, 2009; Moradi et al., 2005). 국내 여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가 성적 대상화 경험과 신체감시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났고(김시연 외, 2010), 여고생을 대상으로 음악방송 노출을 통한 간접적 경로를 통한 성적대상화 경험과 신체감시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시연, 서영석, 2011). 그리고 신체감시와 우

울 간에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redrickson & Roberts, 1997). 또한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두 집단을 나누어 연구한 결과에서 자기 대상화와 우울의 간의 중재효과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집단에서만 나타났다(정은혜, 2010), 남, 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기 대상화 수준이 높은 집단이 우울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정선, 2007). 반면 국내에서 신체감시를 매개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볼 때 성적 대상화 경험은 사회문화적 가치내면화를 통해 신체감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국내에서는 여자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러한 경로를 통해 최종적으로 우울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인과적 경로가 검증된 연구는 없었다. 청소년 시기는 또래나 가족의 피드백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Dunkley, Wertheim와 Paxton(2001)는 청소년기 또래집단이 신체상의 형성과 외모관련 행동에 영향을 주는 주요 기제로 작용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Keery, Boutelle, Berg와 Thompson(2005)는 부모와 형제 자매의 외모에 대한 지적, 놀림 등은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며, 신체만족도 및 사회문화적 규준의 내면화에도 영향을(김은혜, 2013)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대인간 성적 대상화 경험이 자기 대상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내면화가 신체감시를 매개로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정하였다. 이는 타인의 관점으로 자신의 신체를 바라보는 여성들은 자신의 신체에 과도하게 신경 쓰게 되고 이로 인해 자신의 신체에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나고 우울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백근영, 서영석, 20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자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과 인과적 관련성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대상화 이론과 선행연구들을 바탕

으로 대인관계에서의 성적대상화 경험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와 신체감시를 매개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III. 방 법

이 장에서 내용은 연구문제 검증을 위한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측정도구, 자료분석 순으로 기술하였다.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가.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자청소년 대상으로 3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347)

		빈도	%
중 학교	1학년	5	1.4
	2학년	43	12.4
	3학년	97	28.0
고 등 학 교	1학년	74	21.3
	2학년	88	25.4
	3학년	40	11.5
지 역	부산광역시	131	37.8
	경상남도	216	62.2

		빈도	%
우울수준	정상(normal)	139	40.1
	경미한 우울(mild)	68	19.6
	경계선 우울(borderline)	50	14.4
	중등도 우울(moderate)	62	17.9
	심한 우울(severe)	19	5.5
	극도의 우울(extreme)	9	2.5

주. 우울수준은 BDI(Beck Depression Inventory) 점수가 9점 이하 정상(normal), 10점-15점은 경미한 우울(mild), 16점 - 20점은 임상적 경계선 우울(borderline), 21점 - 30점은 중등도 우울(moderate), 31점 - 40점은 심한 우울(severe), 40점 이상은 극도의 우울(extreme)로 분류한다.

본 연구의 설문에 응답한 전체 여자청소년 347명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여자중학생 145명(41.8%), 여자가동학생 202명(58.2%)으로 여자가동학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학년은 중학교 1학년이 5명(1.4%), 중학교 2학년이 43명(12.4%), 중학교 3학년이 97명(28%), 고등학교 1학년이 74명(21.3%), 고등학교 2학년이 88명(25.4%), 고등학교 3학년이 40명(11.5%)로 분포되었다. 지역별로는 경상남도가 216명 (62.2%), 부산광역시가 131명(37.8%)으로 경상남도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우울수준은 정상(normal)이 139명(40.1%), 경미한 우울상태(mild)가 68명(19.6%), 경계선 우울상태(borderline)가 50명(14.4%), 중등도 우울상태(moderate)가 62명(17.9%), 심한 우울상태(severe)가 19명(5.5%), 극도의 우울상태(extreme)가 9명(2.5%)로 나타났다.

나. 자료수집

2019년 7월 1일부터 7월 22일까지 22일간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 소재한 중, 고등학교 4개교에서 설문지를 배포 및 수거가 이루어졌다. 설문조사 실시 전에 담당 교사에게 조사 실시 지침 및 안내사항을 전달하였고 학교 수업을 종료한 후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에 응답하기 전, 연구자의 연구목적과 설문지에 대한 설명 및 결과처리 방법, 주의 사항, 익명성 보장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동의한 학생들을 연구에 참여시켰다.

설문지는 390부 배부하였고, 그 중 363부가 회수되어, 90%이상의 회수율을 보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결측치를 포함하거나 및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 16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총 347부가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설문지는 일반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한 인적사항과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 척도,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 척도, 신체감시 척도, 우울 척도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자기보고식으로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들은 시간차에 따른 외부변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시에 사용이 되었으며, 설문을 완료한 대상자들에게는 2000원 상당의 소정의 포인트를 지급하였다. 전체 설문지 작성 시간은 약 10-15분 정도 소요되었다.

2. 측정도구

여자청소년의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내면화, 신체감시,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측정도구의 구체적인 내용과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가.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 척도

여자청소년의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Kozee, Tylka, Augustus-Horvath와 Denchik(2007)가 개발한 대인 성적 대상화 척도(Interpersonal Sexual Objectification)를 김시연과 서영석(2010)이 번안한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5문항으로 신체 평가와 원하지 않는 노골적인 성적접근 등 2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체평가 11문항, 노골적인 성적접근 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시연과 서영석(2010)의 연구에서 전체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1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척도의 전체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3, 하위요인인 신체평가는 .90, 노골적 성적접근은 .87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과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표 2.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 척도의 문항구성

하위변인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신체 평가	11	1, 2, 3, 4, 5, 6, 7, 8, 9, 10, 11	.90
노골적 성적 접근	4	12, 13, 14, 15, 16	.87
전체	15		.93

나. 우울 척도

여자청소년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Beck(1961)이 개발한 우울척도(Beck Depression)를 이영호와 송종용(1991)이 번안, 타당화한 우울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0점-3점) 척도로 평정하여 전체점수 범위는 0-63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영호와 송종용(1991)의 연구에서 전체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8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우울척도의 전체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2로 나타났다.

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 척도

여자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Heinberg, Thompson과 Stormer(1995)이 개발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 척도(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를 이상선과 오경자(2003)가 번안 및 타당화하고 송경자와 이미숙(2009)이 청소년 대상 연구를 위해 요인분석을 통해 수정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척도의 하위요인인 내면화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상선과 오경자(2003)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9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7로 나타났다.

하위요인의 문항 구성과 신뢰도는 표 3과 같다.

표 3.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 척도의 문항 구성

척도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내면화(단일요인)	7	1, 2, 3, 4, 5, 6, 7 *	.87

*표는 역문항

라. 신체감시 척도

신체감시를 측정하기 위해 Lindber, Hyce와 McKinley(2006)가 개발한 대상화된 신체의식 척도(The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Scales for Youth)를 구자연(2009)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청소년용 대상화된 신체의식 척도를 사용한다. 이 척도는 총 9문항으로 신체감시 4문항, 신체수치심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7점 Likert식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감시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구자연(2009)의 연구에서 전체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감시 척도의 전체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9, 하위요인인 신체감시성은 .86, 신체 수치심은 .86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과 신뢰도는 표 4와 같다.

표 4. 신체감시 척도의 문항 구성

하위변인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신체감시성	4	1, 2, 3, 4	.86
신체 수치심	5	5, 6, 7, 8, 9	.86
전체	9		.89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1.0과 Mplus 8.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학년, 지역, 우울수준)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들의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문항 간 내적합치도(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셋째, 측정변인의 정규성 검증을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사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하였다.

넷째, 연구에 사용된 변인의 전체 점수 및 하위요인들 간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 신체감시 및 우울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Anderson과 Gerbing(1988)이 제안한 2단계 접근(Two-step approach)을 적용하여 측정 모형 검증과 구조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때, 모수 추정 방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이용하였으며, 모형 적합도 지수는 Comparative Fit Index(CFI), Tucker Lewis Index(TLI), standardized root mean squared residual(SRMR), Root Mean Square Error or Approximation(RMSEA)을 사용하였다. 측정 모형 검증에 앞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와 우울 요인은 단일요인이므로 요인묶음방법(Factor-Parceling Approach)으로 각 변인 당 3개의 요인으로 문항묶음(item parceling)을 하였으며, 구조모형 검증 시 χ^2 차이검증을 실시하여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비교하였다.

여섯째,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과 우울간 관계에서 나타나는 간접 효과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검증

을 실시하였다. 이 방법은 기존의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방법인 Sobel 검증에 비해 정상분포 가정의 위반 가능성이 작으며, 높은 검증력을 가지는 장점이 있다(MacKinnon et al., 2002; Shrout & Bolger, 2002).



IV. 결 과

이 장에서는 여자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지 변인들의 구조를 밝히기 위해 검증하였다. 본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측정변인의 기술통계 분석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 분석을 위해 평균, 표준편차 및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였고,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측정변인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N = 374)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전체대상화	30.27	11.48	.76	-.01
신체평가	23.25	8.46	.57	-.26
성적접근	7.02	3.48	1.27	1.02
전체 사회적 가치 내면화	23.42	6.39	-.26	-.34
전체 신체감시	28.80	7.80	.00	-.16
신체감시	14.54	3.61	-.43	-.26
신체수치	14.26	5.05	.25	-.39
전체우울	14.10	10.91	.82	.39

왜도와 첨도는 구조방정식의 정상성을 가정할 수 있는 수치로 왜도 $< \pm 2.0$, 첨도 $< \pm 7.0$ 인 경우 정상성을 가정할 수 있다(West, Finch, & Curran, 1995).

분석 결과, 측정변인들의 왜도는 최소: -0.43 , 최대: 1.27 으로 나타났으며, 첨도는 최소: -0.39 , 최대: 1.02 로 나타나 왜도의 절대값이 2를 넘지 않았으며, 첨도의 절대값이 7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성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측정변인 간 상관분석

측정변인인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 신체감시 및 우울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전체 점수 및 하위요인들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측정변인 간 상관분석 결과

(N=374)

	1	1-1	1-2	2	3	3-1	3-2	4
1	-							
1-1	.984***	-						
1-2	.904***	.815***	-					
2	.131*	.160**	.043	-				
3	.264***	.283***	.185**	.635***	-			
3-1	.203***	.228***	.116*	.567***	.858***	-		
3-2	.263***	.274***	.202***	.575***	.930***	.611***	-	
4	.255***	.268***	.190***	.224***	.369***	.280***	.370***	-

* $p < .05$, ** $p < .01$, *** $p < .001$

주. 1. 전체 대인성적 대상화 경험, 1-1. 신체평가, 1-2. 성적 접근, 2. 전체 사회적 가치 내면화, 3. 전체 신체감시, 3-1. 신체감시, 3-2. 신체수치, 4. 전체 우울

전체 점수를 중심으로 결과를 살펴보면,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은 사회적 가치 내면화($r = .131, p < .05$), 신체감시($r = .264, p < .001$), 우울($r = .255, p < .001$)과 정적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회적 가치 내면화와 신체감시($r = .635, p < .001$), 우울($r = .224, p < .001$)과의 정적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끝으로 신체감시와 우울($r = .369, p < .001$)과의 정적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3. 측정모형검증

Anderson과 Gerbing(1988)의 2단계 분석 절차(two-step approach)에 따라 1단계 측정모형 검증을 통해 측정변인들이 해당 잠재변인들을 제대로

구인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때, 사회적 가치 내면화와 우울 변인은 단일요인이기 때문에 문항 묶음(item parceling)을 실시하였다. 문항 묶음은 개별 문항을 측정지표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정규성 위반과 표준오차가 커지는 문제를 감소시켜 모형 추정의 안정성을 증가시키고 모형적합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Little, Cunningham, Shagar, & Widaman, 2002). 문항 묶음 시에 모형 적합도와 추정의 편향을 고려하면 요인당 3개의 문항 묶음이 추천되며(Little, Rhemtulla, Gibson, & Schoemann,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가치 내면화는 내면화1, 내면화2, 내면화3으로 우울은 우울요인1, 우울요인2, 우울요인3으로 각각 3개씩의 측정변인을 생성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문항 묶음 방법은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부하량 크기에 따라 가장 큰 요인부하를 가진 문항부터 1~3개의 꾸러미에 할당하고 네 번째부터는 묶음의 순서를 거꾸로 하여 할당하는 요인 알고리즘(factorial algorithm) 방식으로 실시하였다(Little et al., 2002).

측정모형 검증 시 모수 추정 방법은 최대 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이용하였다. 초기 모형을 설정하여 나온 분석결과에서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의 하위요인인 신체평가의 측정오차가 음수로 나타나는 헤이우드(Heywood case)가 발생하였다(Kolenikov & Bollen, 2012). 이는 측정변수의 측정오차가 0보다 작다는 의미로, 이러한 현상은 잠재변수를 구성하는 측정변수가 2개인 경우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측정변수를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차분산 값을 매우 작은 값인 .005 등으로 고정해야 한다(김계수, 2010). 본 연구에서는 잠재변인인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을 구성하는 2개의 측정변인 구조를 유지하면서 모형을 추정하기 위해 신체평가의 오차항의 분산값을 .005로 고정한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으며 모형적합도 지수로 χ^2 , Comparative Fit Index(CFI), Tucker Lewis Index(TLI), standardized root mean squared residual(SRMR), Root Mean Square Error or Approximation(RMSEA)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χ^2 는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초기에 많이 쓰였던 방법이나 영가설이 너무 엄격하여 쉽게 기각되기 쉽고,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아 적합도 판단 기준으로 널리 쓰이지 않기 때문에(홍세희, 2000; Bentler & Bonett, 1980; Hooper, Coughlan, & Mullen, 2008) 참고로만 활용하고, 널리 쓰이는 모형 적합도 지수로 상대적합지수인 TLI와 CFI를 확인하였으며 TLI, CFI는 .90 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간주한다(Hu & Bentler, 1999). 절대 적합도 지수로는 RMSEA, SRMR을 확인하였으며, RMSEA의 적합도 기준은 .05미만이면 좋은 적합도(close fit), .08미만이면 괜찮은 적합도(reasonable fit), .10미만이면 보통 적합도(mediocre fit), .10이상일 경우 나쁜 적합도(unacceptable fit)를 나타낸다(Browne & Cudeck, 1992). SRMR의 경우 .05이하이면 양호한 모델로 평가하고 .10미만이면 대체로 양호한 모델로 평가된다(문수백, 2015).

표 7.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χ^2	df	CFI	TLI	SRMR	RMSEA (90% 신뢰구간)
측정모형	51.290	30	.991	.987	.030	.045(.023-.066)

표 7에 제시된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결과를 살펴보면, CFI가 .991, TLI가 .987, RMSEA가 .045(90% 신뢰구간: .023 - .066)로 좋은 적합도 지수를 나타내 측정모형 검증을 만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측정변인들은 잠재변수를 적절하게 구성하고 있어 측정모형이 자료를 분석하는데 적절하

므로 잠재변수들 간의 이론적 관계를 검증하는 구조모형들의 검증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나타난 각 잠재변인들에 대한 측정변인의 모수 추정치는 표 8에 제시하였으며,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변인들의 요인 부하량(β)이 모두 .5 이상으로 측정변인들이 해당 잠재변인들을 잘 측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Hair, Black, Babin, & Anderson, 2010).

표 8. 측정모형의 잠재변인과 측정변인 간 모수 추정치

		<i>B</i>	SE	β	<i>t</i>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	신체평가	1.000		1	
	성적접근	.336	.013	.815	26.242***
사회적가치내면화	내면요인1	1.000		.866	
	내면요인2	.810	.039	.881	20.635***
	내면요인3	.741	.038	.853	19.713***
신체감시전체	신체감시	1.000		.756	
	신체수치	1.494	.116	.808	12.848***
우울	우울요인1	1.000		.905	
	우울요인2	.994	.038	.909	26.471***
	우울요인3	1.059	.038	.930	27.771***

*** $p < .001$

4. 구조모형 검증

측정모형을 통해 각 측정변인들이 해당 잠재변인들을 잘 측정하고 있음

을 확인하였으므로, 잠재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모수 추정 방법은 최대 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이용하였으며, 모형적합도 지수로 χ^2 , Comparative Fit Index(CFI), Tucker Lewis Index(TLI), standardized root mean squared residual(SRMR), Root Mean Square Error or Approximation(RMSEA)를 제시하였다. TLI, CFI는 .90 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간주되며(Hu & Bentler, 1999), RMSEA는 .05미만 이면 좋은 적합도(close fit), .08미만이면 괜찮은 적합도(reasonable fit), .10미만 이면 보통 적합도(mediocre fit), .10이상일 경우 나쁜 적합도(unacceptable fit)를 나타낸다(Browne & Cudeck, 1992). SRMR의 경우 .05이하이면 양호한 모델로 평가하고 .10미만이면 대체로 양호한 모델로 평가된다(문수백, 2015).

본 연구에서는 구조모형 검증을 위해서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모형 적합도를 비교하여 경험 자료를 가장 잘 설명하면서도 간명한 최적의 모형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때, 연구모형은 경쟁모형에 위계적으로 내재된(hierarchically nested) 모형으로 두 모형의 χ^2 차이검증(χ^2 difference test)을 실시하여 그 결과가 통계적의 유의한지를 확인하여 최종모형을 결정하고자 하였다. χ^2 차이검증은 자유도 변화(Δdf)와 비교하여 χ^2 의 차이($\Delta\chi^2$)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면 간명한 모형을 선택하고, χ^2 의 차이($\Delta\chi^2$)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복잡한 모형을 선택한다(김수영, 2016).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지수 및 χ^2 차이검증 결과는 표 9에 제시하였다.

표 9.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지수

	χ^2	df	CFI	TLI	SRMR	RMSEA (90% 신뢰구간)
연구모형	85.838	33	.978	.970	.071	.068(.050-.086)
경쟁모형	51.290	30	.991	.987	.030	.045(.023-.066)
차이검증	$\Delta\chi^2(3, N=374) = 34.548, p < .001$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연구모형의 모형적합도 지수는 CFI .978, TLI .970, SRMR .071, RMSEA .068(.050-.086)으로 나타났으며, 경쟁모형의 모형적합도 지수는 CFI .991, TLI .987, SRMR .030, RMSEA .045(.023-.066)으로 나타났다. 두 모형 모두 모형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여 괜찮은 모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χ^2 차이검증 결과 $\Delta\chi^2(3, N=374) = 34.548, p < .001$ 으로 나타나 자유도 변화(Δdf)와 비교하여 χ^2 의 차이($\Delta\chi^2$)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연구모형에 비해 경쟁모형의 CFI, TLI 지수가 높고, SRMR, RMSEA 지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최종적으로 경쟁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경로 및 잠재변인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그림 4, 그림 5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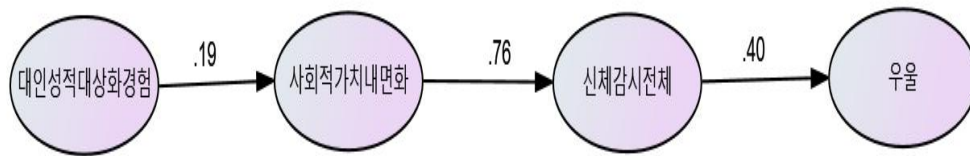


그림 4. 연구모형의 잠재변인 간 경로(표준화 경로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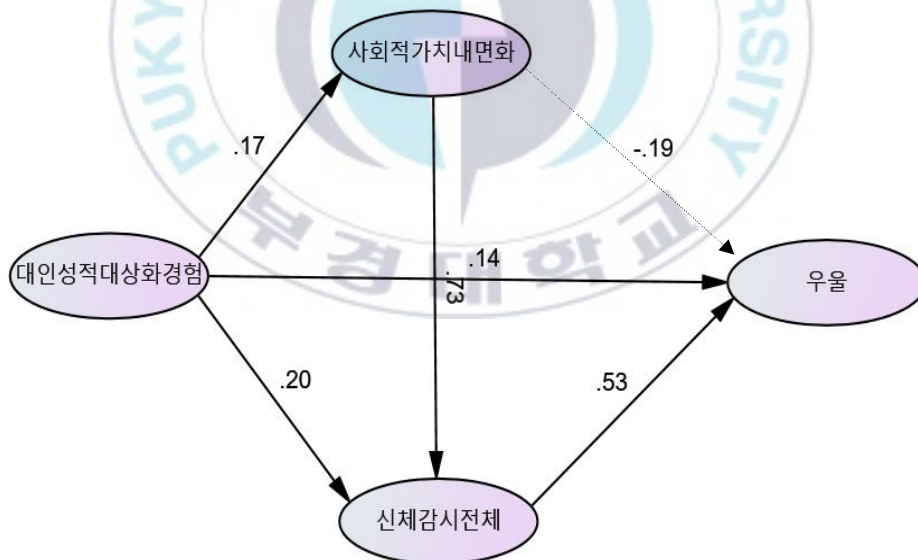


그림 5. 경쟁모형의 잠재변인 간 경로(표준화 경로계수)

주. 실선은 유의한 경로, 점선은 유의하지 않은 경로로 표시함

다음으로 최종모형으로 선정된 경쟁모형에서 나타난 각 경로들의 직접 경로의 크기 및 이에 대한 유의성 검증 결과를 살펴보고, 그 결과를 표 10에 제시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모형 내 경로들의 크기 및 통계적 유의성을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식화하였고, 이를 그림 6에 제시하였다

표 10 최종모형의 경로계수 및 유의도 검증

			<i>B</i>	<i>SE</i>	β	<i>t</i>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	→		.061	.030	.143	2.068*
사회적 가치 내면화	→	우울	-.289	.188	-.190	-1.538
신체감시	→		.694	.189	.526	3.670***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	→	신체감시	.065	.017	.202	3.937***
사회적 가치 내면화	→		.837	.077	.729	10.829***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	→	사회적 가치내면화	.047	.017	.166	2.7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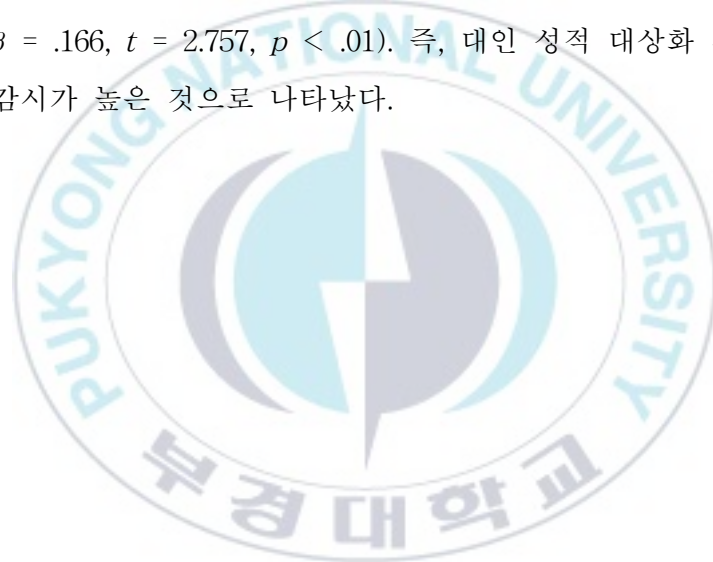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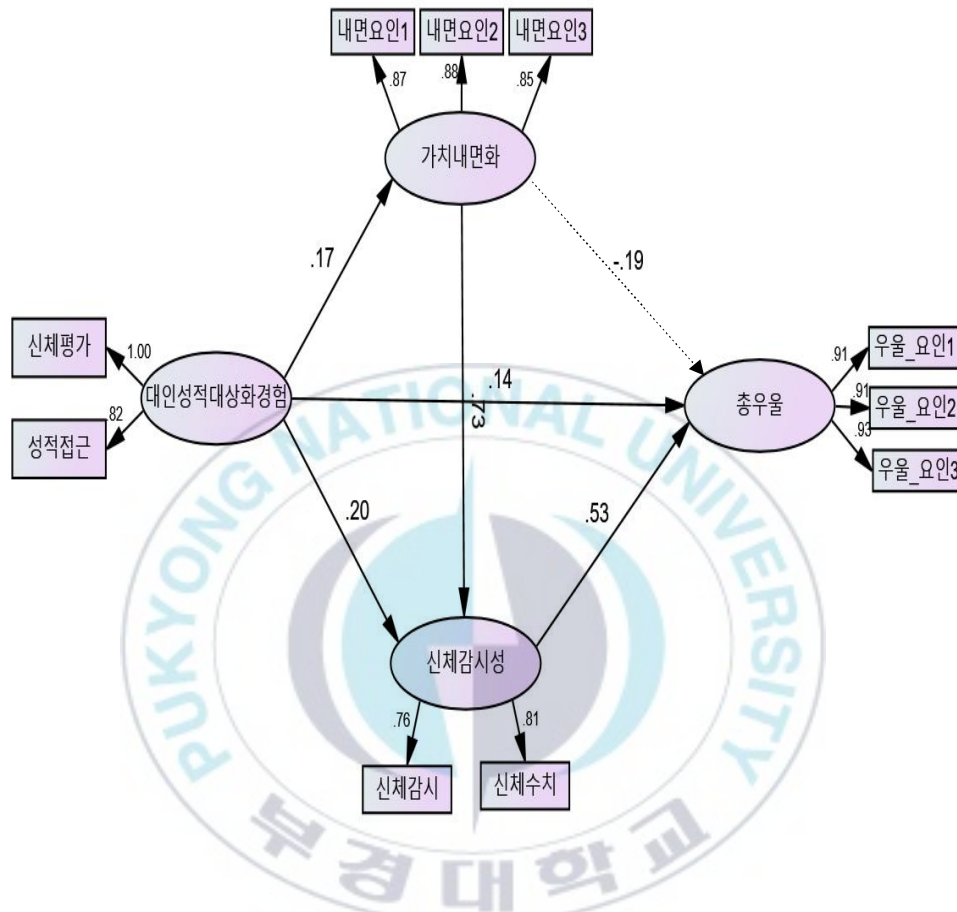
표 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우울에 있어서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beta = .143$, $t = 2.068$, $p < .05$)과 신체감시($\beta = .526$, $t = 3.670$, $p < .001$)의 정적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반면에 사회적 가치 내면화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beta = -.190$, $t = -1.538$, $p >$

.05). 즉,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과 신체감시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사회적 가치 내면화가 우울에 미치는 직접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신체감시에 있어서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beta = .202, t = 3.937, p < .001$)과 사회적 가치 내면화($\beta = .729, t = 10.829, p < .001$)의 정적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과 사회적 가치 내면화가 높을수록 신체감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이 신체감시에 미치는 정적 영향이 유의하였다($\beta = .166, t = 2.757, p < .01$). 즉,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이 높을수록 신체감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 최종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주. 실선은 유의한 경로, 점선은 유의하지 않은 경로로 표시함. 내생변인의 오차 및 잔차항은 생략함.

5.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연구모형에서 나타난 개별적인 간접효과들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실시하였고(Shrout & Bolger, 2002), 그 결과를 표 11에 제시하였다. 이 방법은 반복적인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간접효과의 추정치에 대한 95% 신뢰구간을 구하고, 이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보는 방법이다(Shrout & Bolger, 2002).

표 11 간접효과 부트스트래핑 결과

경로	부트스트랩 추정치	SE	95% 신뢰구간 (Bias-corrected bootstrap)	
			하한	상한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 → 사회적 가치 내면화 → 우울	-.014	.010	-.038	.002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 → 신체감시 → 우울	.045	.017	.018	.045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 → 사회적 가치 내면화 → 신체감시	.039	.015	.010	.069
사회적 가치 내면화 → 신체감시 → 우울	.581	.168	.302	.966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 → 사회적 가치 내면화 → 신체감시 → 우울	.027	.013	.006	.057

주. 부트스트랩 표집은 10,000번, 부트스트랩 추정치는 비표준화된 자료임.

부트스트래핑 검증 결과 첫째,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이 사회적 가치 내면화를 거쳐 우울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 = .014$, 95% Bias-corrected CI = $-.038 \sim .002$).

반면에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이 신체감시를 거쳐 우울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 = .045$, 95% Bias-corrected CI = $.018 \sim .045$). 즉,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이 높을수록 신체감시가 높아지고, 우울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이 사회적 가치 내면화를 거쳐 신체감시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B = .039$, 95% Bias-corrected CI = $.010 \sim .069$). 즉,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이 높을수록 사회적 가치 내면화가 높아지며, 이는 신체감시의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

세 번째로 사회적 가치 내면화가 신체감시를 거쳐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 = .581$, 95% Bias-corrected CI = $.302 \sim .966$). 즉, 사회적 가치 내면화가 높아질수록, 신체감시의 증가를 통해 우울이 높아지는데 영향을 미친다.

끝으로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이 사회적 가치 내면화와 신체감시를 거쳐 우울에 미치는 순차적인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 = .027$, 95% Bias-corrected CI = $.006 \sim .057$). 즉,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이 높을수록 사회적 가치 내면화가 높아지며, 이는 신체감시의 증가를 통해 우울이 높아지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논 의

본 연구는 여자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 신체감시를 통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대상화 이론과 선행연구 토대로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이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와 신체감시 변인의 완전 매개를 통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모형을 설정하였으나, 위계적 모델의 비교를 위한 χ^2 차이 검증 결과 최종적으로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직접 효과가 유의한 부분매개를 가정한 경쟁모형이 선택되었다. 최종모형의 구체적 경로에 대해 설정한 연구문제에 따라 본 연구 결과를 논의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에서 대인관계에서 성적 대상화 경험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를 통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경로가 유의할 것으로 경로를 설정하였으나, 연구 결과 성적 대상화 경험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를 거쳐 우울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체감시 변인이 포함되지 않은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 우울 세 변인간의 관계에서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직접 효과가 유의한 반면에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가 우울에 미치는 직접 효과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는 여자청소년들이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외모에 대해 평가 받거나 노골적인 성적 접근의 경험 자체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 증가에 영향을 주고, 우울을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미치지만,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가 직접적으로 우울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성적 대상화 경험과 우울사이에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의 매개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먼저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자기 대상화 수준이 우울에 미치는 직접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Grade, Hyde 및 Lindberg(2007)의 연구와 Szymanski와 Henning(2006)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국내연구에서도 여자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상화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정은혜, 박경, 2009),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박은준, 최다빈, 2018)와 남, 여대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대상화 경험이 증가할수록 우울이 함께 증가하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김정선, 2007). 그리고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에 미치는 영향은 여자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적 대상화 경험이 높을수록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김시연, 서영석, 2011)와 일치한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여자청소년들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내면화가 성적 대상화 경험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를 통해 우울을 매개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가 우울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결과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가 높을수록 자신의 신체를 의식하고 평가, 비교, 통제하는 신체감시를 하게 되고, 지속적인 신체감시 행동은 부정적인 정서를 야기하며 결국 섭식장애(김시연, 백근영, 서영석, 2010), 성형의도(장지원, 2012)에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두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으나,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가치 내면화 자체가 우울을 직접적으로 야기하기 보다는 내면화 된 기준과 자기 신체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를 통한 비교나 차이 인식으로 인해 부정적 정서 발생이 우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빠른 성장을 하고 정서적으로 민감한 이 시기의 여자청소년들은 자신의 신체와 외모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미디어나 방송 등을 통해 날씬한 몸매나 이상적인 외모를 내면화 한다고 하더라도 내면화만으로는 우울에는 영향을 미치지 보다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신체에 타인의 시선이나 피드백에 지속해서 노출이 되면 대상화로 이어지고 이는 자신이 비판적인 관찰자의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습관화되어 수치심과 불안 등의 부정적 정서를 가지게 되며 결국 우울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대인관계에서 성적 대상화 경험이 신체감시를 통해 우울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두 번째 연구문제가 지지되었다. 이는 여자청소년들이 대인관계에서 성적 응시나 성적 접근 또는 미디어를 통한 노출을 통해 반복적인 성적 대상화 경험을 하게 되면 자신의 신체를 관찰자의 관점으로 내면화하여 자신을 평가받는 대상으로 지각하게 된다. 이로 인해 자신의 신체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평가하는 신체감시가 이루어지는데,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외모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불안, 신체 수치심, 좌절감 등 부정적 심리적 경험으로 이어지고 이것으로 인해 우울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또래관계에서 외모관련 대화나 비판을 많이 경험할수록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는 신체감시 행동을 더 많이 나타내고 이로 인해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불안을 느껴 결국 부정적인 섭식행동과 근육질 추구 성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시연, 서영석, 2012)는 결과와 일치하며, 대인관계에서 성적 대상화 경험을 많이 하게 될수록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낮아져 우울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김정선, 2007)와 성적 대상화 경험을 하게 되면 신체감시를 하게 되고 그로인해 부정적인 감정이 높아져 피부관리행동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

(문희정, 2016)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이처럼 여자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상 신체적 변화가 일어나면 타인에 의해 대상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청소년기에는 자아 중심성으로 인해 타인을 의식하며 타인과 자신을 비교할 뿐 아니라 타인의 평가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시기이므로(Fredrickson & Roberts, 1997), 외모에 대해 민감해지고 끊임없이 자신의 외모를 신경 쓰게 되어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게 된다. 따라서 자신이 타인보다 못하다고 느끼는 감정으로 열등감을 가지며,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여 대인관계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게 되어 결국 부정적 정서인 우울이 유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대인관계에서 성적 대상화 경험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를 통해 신체감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인관계에서 성적 대상화 경험이 신체감시에 미치는 직접 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자청소년들이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을 하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을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고, 자신의 신체를 지속해서 제 삼자의 관점으로 관찰하고 통제하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여자고등학생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가 높을수록 신체감시가 높아진다고 보았던 선행연구들(김시연, 서영석, 2011; 이지연, 장지원, 장진이, 2011)의 결과와도 일치하며 성별은 다르지만 남자고등학생들이 또래 관계에서 외모와 관련하여 대화나 비판을 많이 경험할수록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는 신체감시 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연구 결과(김시연 외, 2010)와 일치한다. 여자청소년들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완성되지 않고 외모에 대한 자의식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며, 신체에 대한 자아개념을 확립해 나가는 시기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인정욕구가 높고 자신의 외모나 행동, 생각, 감정에 대한 자기-자각 능력이 급증하여 외모와 관련된 사회적 인식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자신

이 외모가 타인에게 어떻게 보여 지는가에 집착하게 된다. 또한 가족, 친구들 간의 외모에 대한 대화나 평가나 미디어 등을 통한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로 인해 이상적인 신체 기준에 지속해서 노출되고 학습됨에 따라 실현하기 어려운 이상적인 기준을 수용하게 되어 자신의 신체를 지속해서 감시하는 행동을 유발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성적 대상화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가 증가하고 자신의 신체를 관찰자의 관점으로 감시, 평가, 통제하는 신체 감시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는 우울에 신체감시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네 번째 연구 문제가 지지되었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 자체가 우울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지만,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내면화하여 자신이 원하는 이상적인 외모의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의 신체를 감시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부정적인 정서인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여자청소년들이 가족, 친구, 미디어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로 인해 사회에서 이상화하는 신체 외모를 자신의 기준으로 내면화할 경우 자신의 신체에 대해 지속해서 신경 쓰게 되며 내면화된 이상적인 외모에 대한 기준과 자신의 신체를 비교, 평가하여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외모를 가진 학생들은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우울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선행 연구 결과 김시연 등(2010)과 Moradi 등(2005)에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가 신체감시를 통해 섭식장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따라서 여자청소년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내면화와 신체감시 행동으로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정서인 우울이 발현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최종적으로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내면화와 신체감시를 매개로 우울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다섯 번째 연구 문제가 지지되었다.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이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 신체감시를 통해 부분매개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을 한 여자청소년들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가 높을수록 신체감시가 높아지고,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와 신체감시가 높아질수록 부정적인 정서인 우울이 더 높아진다. Fredrickson과 Roberts(1997)의 대상화 이론에서는 성적인 평가와 접근 등과 같은 성적 대상화 경험을 반복적으로 한 여성들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주인 의식을 잃어버리고 관찰자의 관점을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게 되며, 관찰자의 관점으로 지속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의식하게 되거나 자신의 신체외모에 대한 지나친 감시로 나타나 신체에 대한 수치심, 불안을 느끼며, 결국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여자청소년들은 미디어와 대인관계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외모에 대한 평가나 노골적인 성적접근들이 많을수록 사회문화적으로 이상화된 외모를 내면화가 높아지게 되고 자신의 신체를 지속해서 관찰하고 통제를 하게 되는데 이는 신체적으로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여자청소년들에게 현실에 맞지 않는 이상화된 외모를 기준으로 하여 부정적 정서인 우울이 발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대상화 이론에서 가정하는 대상화 관련 변인들의 인과적 관계가 우리나라 여자청소년들을 설명하는 데에도 적합하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또한 여자청소년이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와 신체감시를 통해 우울에 영향을 주는 과정을 밝힘으로써 관련 변인들과 우울 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성적대상화 경험에 대한 외현적인

문제들이 여자청소년의 우울과 같은 심리 정서적 문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이들 요소가 반영된 상담전략을 세우고, 우울예방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모집단이 한 개의 시와 한 개의 도에서 중, 고등학교 여자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우므로 다양한 지역의 중, 고등학교 여자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여자청소년을 중, 고등학생으로 제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우며, 대상의 연령을 좀 더 낮추어 폭넓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연구는 자기보고식 검사를 통해 측정되었다는 점에서 자료의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질문지법과 더불어 관찰법과 면접법 등을 포함하여 보다 다양한 연구 방법을 포함하여 변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 신체감시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이외에도 우울을 설명하는 다양한 변인들이 존재하므로 새로운 변인을 탐색하고, 경로를 모색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강석기, 고수현 (2012). 청소년기 후기 대학생의 우울과 불안이 사이버 중독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8), 143-168.
- 강향숙, 박은진, 정지영 (2014). 청소년의 우울과 치료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38, 91-123.
- 경기일보 <http://www.kyeonggi.com/>
- 구자연 (2009). **한국판 청소년용 대상화된 신체의식 척도 (K-OBC-Y)의 타당화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석만 (2012). **현대 이상심리학**. 서울: 학지사.
- 김계수 (2010). **구조모형방정식 분석**. 서울: 한나래출판사.
- 김수영 (2016).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본과 확장**. 서울: 학지사.
- 김시연, 백근영, 서영석 (2010).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의 내면화가 섭식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4), 613-634.
- 김시연, 서영석 (2011). 음악방송 노출을 통한 성적대상화 경험이 여자고등학생의 부정적 섭식행동, 수행불안 및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4), 1137-1160.
- 김시연, 서영석 (2012). 또래 대상화경험이 남자고등학생이 부정적 섭식행동 및 근육질 추구에 미치는 영향: 신체감시 및 신체불안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4), 929-948.
- 김 윤 (2007). **사회문화적 압력, 미적고정관념의 내면화 및 대상화된 신체이식이 신체만족과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은정, 오경자 (1992). 발달적 관점에서 본 아동 및 청소년기 우울증상.

청소년정신의학, 3(1), 117-128.

김은정, 오경자, 하은혜 (1999). 기혼 여성의 우울증상에 대한 취약성. **한국 심리학회지: 여성**, 4(1), 1-14.

김은혜 (2013). **대상화요인이 청소년의 외모만족도, 자아개념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정선 (2007). **자기 대상화가 신체경험, 우울 및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종남, 정지영 (2011). 중학생의 우울과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인지적 정서 조절전략, 행동억제 기질 간의 관계: 성차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8(12), 227-252.

김진이 (2018). **미디어를 통한 사회문화적 기준의 내면화, 또래 대상화경험, 신체감시가 남성의 신체불만족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현정 (2014). **청소년 우울의 영향요인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류은정, 서정석, 함미영, 박영례, 문석우, 남범우 (2006). 청소년의 성역할 정체감과 불안, 우울, 자살사고. **정신간호학회지**, 15(2), 136-143.

류희정 (2010).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 우울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치유방안 연구**. 상명대학교 복지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수백 (2015). **구조방정식모델링의 이해와 실제**. 서울: 학지사.

문희정 (2016). 성적 대상화 경험과 외모에 대한 태도, 신체감시가 신체수치심을 매개하여 의복행동, 체중조절행동, 피부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미용학회지**, 22(1), 11-20.

박은준, 최다빈 (2018). 미용 전공 여대생의 대상화 경험이 신체적 우울감과 신체적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미용학회지**, 24(6), 1337-1342.

- 백근영, 서영석 (2011). 여성 직장인의 성적 대상화 경험과 일 몰입의 관계: 내면화와 신체감시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6(4), 555-571.
- 보건복지부 (2019). **청소년건강형태 온라인 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 서수경 (2017). **스타일링 교육이 청소년의 외모만족도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우석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선안남 (2008). **자기 대상화, 신체 수치심이 여대생의 섭식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은정 (2006). 대상화 경험이 여성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1(4), 399-417.
- 손은정 (2011). 여대생의 성형수술 경험 및 성형수술 만족 여부에 따른 심리사회적 특성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6(1), 23-42.
- 송경자, 이미숙 (2009).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지각적, 태도적 신체 이미지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7(2), 97-110.
- 신미영 (1997). **대중매체가 여성의 다이어트와 섭식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진아 (2016). **청소년의 우울과 또래애착이 사이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충동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효정 (2002). **현대 여성의 아름다운 외모에 대한 질적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아시아경제 <https://www.asiae.co.kr/article/>
- 오윤선 (2008).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중독이 우울, 공격성,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논문집**, 6(4), 3-15.

- 윤은영 (2005).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광주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혜민 (2017).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면화, 외모도구성과 신체이형장애 성향의 관계: 자기대상화의 매개효과와 자기개념의 다면성의 조절효과**.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상선, 오경자 (2003).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태도 설문지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4), 913-926.
- 이선주, 하은혜 (2010). 여자청소년의 우울증상과 신체화 증상의 관계에서 인지적 요인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7(1), 55-68.
- 이순희, 허만세 (2015). 청소년의 우울과 비행의 중단적 인과관계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7(2), 241-264.
- 이영호, 송중용 (1991). BDI, SDS, MMPI-D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0(1), 98-113.
- 이종화 (2008). 여자청소년의 성역할정체감과 우울.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14(3), 277-284.
- 이지연, 장지원, 장진이 (2012). 여고생의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과 성형의도의 관계: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 신체감시, 신체수치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4), 559-577.
- 이희연, 하은혜 (2008). 청소년기 우울증상의 성차에 대한 인지적 왜곡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3(4), 547-561.
- 장지원 (2012).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 신체감시, 신체수치심이 여자 고등학생의 성형의도에 미치는 영향**.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희순 (2007). 한국의 성형문화, 어떻게 볼 것인가: 청소년의 신체상과 성

형태도에 대한 고찰.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자료집, 6-7.

정경아 (2016). 청소년의 우울, 불안, 충동성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은혜 (2010). 여자청소년의 자기 대상화와 우울 및 섭식간의 관계: 신체 수치심의 중재효과.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은혜, 박경 (2009). 여자청소년의 자기 대상화와 우울 및 섭식간의 관계: 신체수치심의 중재효과. 심리치료학회지, 9(2), 1-8.

최서연 (2016). 중, 고등학교 청소년의 신체에 대한 수치심과 섭식태도이 관계: 자기자비의 조절효과.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옥주 (2017).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폭력과 차별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윤정 (2005). 미디어에 의한 여성들의 신체불만족현상에 관한 연구: TV와 잡지 소비로 인한 신체불만족현상과 다이어트, 성형수술에 대한 동의 관계 분석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정윤 (2016). 여대생의 SNS노출과 성형의도 간의 관계: 미의 기준 내면화, 신체감시, 얼굴감시, 신체수치심의 매개효과 검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진주 (2013). 여자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신체존중감이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 경 (2013). 여대생의 성적 대상화 경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의 내면화, 신체감시, 신체수치심이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1), 161-177.
- 황인지 (2017). 여대생의 물질주의, 온정적 성차별주의와 신체수치심 간의 관계: 미의 기준 내면화, 신체감시, 얼굴감시의 매개효과 검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nheier, H., & Kendall, J. (2000). Interpersonal trust and voluntary associations: Examining three approaches.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3(3), 343-362.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7).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III-R)*.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 Washington, DC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Beck, A. T., Ward, C. H., Mendelson, M., Mock, J., & Erbaugh, J. (1961). An inventory for measuring depress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6), 561-571.
- Bentler, P. M., & Bonett, D. G. (1980). Significance tests and goodness of fit in the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s. *Psychological Bulletin*, 88(3), 588-606.
- Carlson, G. A., & Cantwell, D. P. (1980). Unmasking masked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21(1), 19-25.

- Costanzo-Nordin, M. R. (1992). Cardiac allograft vasculopathy: Relationship with acute cellular rejection and histocompatibility. *The Journal of Heart and Lung Transplantation*, 11(3), 90-103.
- Dacey, J., & Kenny, M. (1994). *Adolescent development*. Dubuque, IA: Brown Communications.
- Davis, C. J. (2005). N-Watch: A program for deriving neighborhood size and other psycholinguistic statistics. *Behavior Research Methods*, 37(1), 65-70.
- Dunkley, T. L., Wertheim, E. H., & Paxton, S. J. (2001). Examination of a model of multiple sociocultural influences on adolescent girls' body dissatisfaction and dietary restraint. *Adolescence*, 36(142), 265-279.
- Fea, C. J., & Brannon, L. A. (2006). Self-objectification and compliment type: Effects on negative mood. *Body Image*, 3(2), 183-188.
- Fredrickson, B. L., & Roberts, T. A. (1997). Objectification theory: Toward understanding women's lived experiences and mental health risk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1(2), 173-206.
- Fredrickson, B. L. (1998). Cultivated emotions: Parental socialization of positive emotions and self-conscious emotions. *Psychological Inquiry*, 9(4), 279-281.
- Hair, J. F., Black, W. C., & Babin, B. J. (2010). *Anderson. RE, 2010. Multivariate Data Analysis*.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Prentice Hall.
- Hauenstein, E. J. (2003). Depression in adolescence. *Journal of*

- Obstetric, Gynecologic, & Neonatal Nursing*, 32(2), 239-248.
- Heinberg, L. J., Thompson, J. K., & Stormer, S. (1995).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17(1), 81-89.
- Hooper, D., & Coughlan, J. (2008). J., & Mullen, M.(2008).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Guidelines for determining model fit. *Electronic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Methods*, 6(1), 53-60.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Jylhä, P., & Isometsä, E. (2006). The relationship of neuroticism and extraversion to symptoms of anxiety and depression in the general population. *Depression and Anxiety*, 23(5), 281-289.
- Keery, H., Boutelle, K., Van Den Berg, P., & Thompson, J. K. (2005). The impact of appearance-related teasing by family member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37(2), 120-127.
- Kittler, J. E. (2003). *Print media exposure as a predictor of disordered eating: The role of self-objectification, body shame, and appearance responsibility*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 Kolenikov, S., & Bollen, K. A. (2012). Testing negative error variances: Is a Heywood case a symptom of misspecification?.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41(1), 124-167.
- Kozee, H. B., Tylka, T. L., Augustus-Horvath, C. L., & Denchik, A.

- (2007).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interpersonal sexual objectification scale.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1(2), 176-189.
- Lindberg, S. M., Hyde, J. S., & McKinley, N. M. (2006). A measure of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for preadolescent and adolescent youth.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0(1), 65-76.
- Little, T. D., Cunningham, W. A., Shahar, G., & Widaman, K. F. (2002). To parcel or not to parcel: Exploring the question, weighing the merit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9(2), 151 - 173.
- Little, T. D., Rhemtulla, M., Gibson, K., Schoemann, A. M. (2013). Why items versus parcels controversy needn't be one? *Psychological Reports*, 18(3), 285 - 300.
- McKinley, N. M. (1995). *Women and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A feminist psychological analysis*.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McKinley, N. M., & Hyde, J. S. (1996). The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0(2), 181-215.
- Miner-Rubino, K., Twenge, J. M., & Fredrickson, B. L. (2002). Trait self-objectification in women: Affective and personality correlate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6(2), 147-172.
- Mitchell, K. S., & Mazzeo, S. E. (2009). Evaluation of a structural model of objectification theory and eating disorder symptomatology among European American and African American undergraduate

- wome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3(4), 384-395.
- Moradi, B., Dirks, D., & Matteson, A. V. (2005). Roles of sexual objectification experiences and internalization of standards of beauty in eating disorder symptomatology: A test and extension of objectification the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3), 420-428.
- Morry, M. M., & Staska, S. L. (2001). Magazine exposure: Internalization, self-objectification, eating attitudes, and body satisfaction in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Canadian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Revue Canadienne des Sciences du Comportement*, 33(4), 269-279.
- Muehlenkamp, J. J., & Saris - Baglama, R. N. (2002). Self - objectification and its psychological outcomes for college wome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6(4), 371-379.
- Paxton, P. (1999). Is social capital declining in the United States? A multiple indicator assessment.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5(1), 88-127.
- Roberts, R. E., Lewinsohn, P. M., & Seeley, J. R. (1995). Symptoms of DSM-III-R major depression in adolescence: Evidence from an epidemiological surve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4(12), 1608-1617.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Smolak, L., Levine, M. P., & Thompson, J. K. (2001). The use of the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 with

- middle school boys and girl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29(2), 216-223.
- Spitzack, C. (1990). *Confessing excess: Women and the politics of body reduction*.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Thompson, J. K., & Stice, E. (2001). Thin-ideal internalization: Mounting evidence for a new risk factor for body-image disturbance and eating pathology.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0(5), 181-183.
- Stice, E. (2002). Risk and maintenance factors for eating pathology: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28(5), 825-848.
- Szymanski, D. M., & Henning, S. L. (2006). The role of self-objectification in women's depression: A test of objectification theory. *Sex Roles*, 56(1-2), 45-53.

Abstract

The Mediation Effect of Internalization and Body Surveillanc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xual Objectification Experiences and Depression in
Female Teenagers

Hwa Suk Youm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dvisor : Seong Moon Che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nalizing sociocultural value and body surveillance on appearance in the effect of interpersonal sexual objectification experience on depression based on Fredrickson and Roberts' (1997) objectification theory.

For this purpose, a model that assumes the internalization of sociocultural value for appearance and the complete mediation of body surveilla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personal sexual objectification experience and depression was set as a research model, and a partial mediation model that has a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depression was set as a competition model. A survey was conducted on middle and high school female adolescents in Busan and Gyeongsangnam-do, an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1.0 program and Mplus 8.2 pro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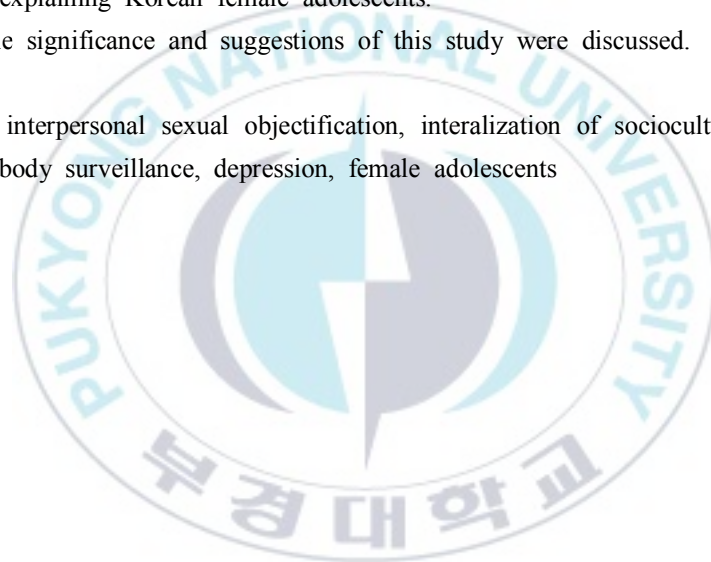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As a result of the difference verification between the research model and the competition model, the final model was selected as a partial mediation model with a significant direct effect of interpersonal objectification experience on depression. The specific path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direct effect of interpersonal sexual objectification on the internalization of sociocultural value on depression and appearance was significant, but the direct effect of the internalization of sociocultural value on appearance was not significant. Second, the indirect effect of interpersonal sexual objectification experience on depression was significant through body surveillance. Third, the indirect effect of the experience of interpersonal sexual objectification on physical surveillance was

significant through the internalization of sociocultural value on appearance, but the direct effect of interpersonal sexual objectification on physical surveillance was also significant. Fourth, the internalization of sociocultural value on appearance had significant indirect effect on depression through body surveillance. Fifth, the indirect effect of interpersonal sexual objectification experience on depression was significant through internalization of sociocultural value and body surveillance of appearance.

This study confirmed the path of interpersonal sexual objectification experience affecting female adolescents' depression through internalization of sociocultural value and body surveillance of appearance. Especially, it was verified that the causal relationship of objectification related variables assumed in objectification theory is suitable for explaining Korean female adolescents.

Finally, the significance and sugges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interpersonal sexual objectification, internalization of sociocultural value for appearance, body surveillance, depression, female adolescents



부록 1.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 척도

다음 문항을 주의 깊게 읽고, 각 문항에 대해서 자신이 얼마나 동의하는지 혹은 동의하지 않는지 정도를 보기를 보고 가장 적당한 곳에 √ 표시해 주십시오.

<보기>	전혀 그렇지 않다 1	대부분 그렇지 않다 2	보통 이다 3	대부분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5
------	-------------------	--------------------	---------------	-----------------	----------------

1. 당신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얼마나 자주 누군가가 당신의 가슴을 응시하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습니까?	1	2	3	4	5
2. 거리를 걸을 때 당신은 얼마나 자주 당신을 향해 휘파람 소리를 내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1	2	3	4	5
3. 당신은 얼마나 자주 누군가 당신의 신체적 외모를 평가하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1	2	3	4	5
4. 당신은 얼마나 자주 누군가 당신의 신체를 응시하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1	2	3	4	5
5. 당신은 얼마나 자주 누군가 당신의 신체를 결눈질하는 것을 눈치 챌 적이 있습니까?	1	2	3	4	5
6. 당신은 얼마나 자주 당신의 신체에 대해서 무례하고 성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1	2	3	4	5
8. 당신은 얼마나 자주 성희롱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1	2	3	4	5
9. 거리를 걸을 때 당신은 얼마나 자주 당신을 향해 울리는 차의 경적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1	2	3	4	5
10. 당신은 얼마나 자주 누군가가 당신을 신체부분을 응시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1	2	3	4	5
11. 당신은 얼마나 자주 당신의 신체에 대해 부적절한 성적 코멘트를 하는 것을 엿들은 적이 있습니까?	1	2	3	4	5
12. 당신은 얼마나 자주 누군가가 당신이 말하는 것을 경청하기 보다는 당신의 신체나 신체 일부분을 주시하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습니까?	1	2	3	4	5
13. 당신은 얼마나 자주 누군가가 당신의 신체를 주목하면서 성적인 코멘트나 빈정거리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1	2	3	4	5
14. 얼마나 자주 당신의 의지와는 상반되게 누군가 당신의 은밀한 신체 일부분을 잡거나 꼬집은 적이 있습니까?	1	2	3	4	5
15. 얼마나 자주 누군가 당신에게 모멸적인 성적 제스처를 적이 있습니까?	1	2	3	4	5

부록 2.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내면화 척도

다음 문항은 여러분의 신체와 외모에 관한 주변 환경들의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보기를 보고 가장 적당한 곳에 √표해 주십시오.

<보기>	전혀 그렇지 않다	대부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부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1.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날씬한 사람들의 모습은 나도 날씬 했으면 하고 바라게 만든다.	1	2	3	4	5
2. TV나 영화에 나오는 날씬한 연예인들의 모습은 내가 목표로 생각하는 유형의 외모를 보여준다.	1	2	3	4	5
3. 나는 패션모델이나 유명 연예인들의 모습과 내 모습을 비교하곤 한다.	1	2	3	4	5
4. 나는 흔히 패션잡지를 보고 내 외모를 모델들과 비교한다.	1	2	3	4	5
5. 나는 옷은 날씬한 모델이 입어야 더 멋있어 보인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6. 나는 내가 수영복 모델 같은 몸매였으면 하고 바란다.	1	2	3	4	5
7. 나는 패션잡지에 나오는 모델처럼 보이길 바라지 않는다.	1	2	3	4	5

부록 3.

신체감시 척도

다음 문항은 여러분의 일반적인 생각과 행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보기를 보고 가장 적당한 곳에 √표해 주십시오.

<보기>	전혀 그렇지 않다	대부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부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1. 나는 내 외모를 다른 사람들과 자주 비교한다.	1	2	3	4	5
2. 나는 내 외모에 대해 자주 생각한다.	1	2	3	4	5
3. 나는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나를 돋보이게 하는지 자주 신경을 쓴다.	1	2	3	4	5
4. 나는 내 외모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자주 신경을 쓴다.	1	2	3	4	5
5. 최고의 모습이 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창피하다.	1	2	3	4	5
6.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멋있게 보이지 않을 때 못난 사람인 것만 같다.	1	2	3	4	5
7. 나는 사람들이 내 실제 몸무게를 알게 되면 창피할 것 같다.	1	2	3	4	5
8. 나는 운동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내가 뚱뚱한 사람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1	2	3	4	5
9. 나는 내가 원하는 신체사이즈가 아닐 때 부끄러움을 느낀다.	1	2	3	4	5

부록 4.

우울 척도

이 질문지는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내용은 모두 네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네 개의 문장들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그 중 최근의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하나의 문장을 선택하여 그 번호에 √표 하여 주십시오. 하나도 빠트리지 말고 반드시 한 문장만을 선택하시되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

- ① 나는 슬프지 않다.
- ② 나는 슬프다.
- ③ 나는 언제나 슬픔에 젖어 헤어날 수가 없다.
- ④ 나는 너무나 슬프고 불행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2. ()

- ① 나는 앞날에 대해 별로 비관적이지 않다.
- ② 나는 앞날에 대해서 비관적이다.
- ③ 나는 앞날에 대한 기대가 아무 것도 없다.
- ④ 나는 앞날이 절망적이고 나아갈 가망이 없다.

3. ()

- ①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 ②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실패한 것 같다.
- ③ 나는 살아온 과거를 돌이켜 보면 생각나는 것은 실패뿐이다.
- ④ 나는 인간으로서 완전히 실패자인 것 같다.

4. ()

- ① 나는 전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만족하고 있다.
- ② 나의 일상생활은 전처럼 즐겁지가 않다.
- ③ 나는 더 이상 어떤 것에도 참된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
- ④ 나는 모든 것이 다 불만스럽고 지겹다.

5. ()

- ① 나는 별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 ② 나는 죄책감을 느낄 때가 많다.
- ③ 나는 거의 언제나 죄책감을 느낀다.
- ④ 나는 항상 죄책감을 느낀다.

6. ()

- ① 나는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② 나는 벌을 받을지도 모르겠다.
- ③ 나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④ 나는 지금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7. ()

- ① 나는 나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는다.
- ② 나는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있다.
- ③ 나는 나 자신이 역겹다.

8. ()

- ① 나는 내가 나쁜 사람들보다 못한 것 같지는 않다.
- ② 나는 나의 약점이나 실수에 대해서 내 자신을 책망한다.
- ③ 나는 내가 한 일이 잘못되어 있을 때 언제나 나를 탓한다.
- ④ 나는 주의에서 일어나는 모든 안 좋은 일을 내 탓으로 돌린다.

9. ()

- ① 나는 자살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 ② 나는 자살을 생각하고 있으나, 실제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 ③ 나는 자살하고 싶다.
- ④ 나는 기회만 있으면 자살하겠다.

10. ()

- ① 나는 평소보다 더 울지는 않는다.
- ② 나는 평소보다 더 많이 운다.
- ③ 나는 요즈음 항상 운다.
- ④ 나는 전에는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었지만, 요즈음은 울래야 울 수도 없다.

11. ()

- ① 나는 요즈음 평소보다 더 화를 내는 편은 아니다.
- ② 나는 평소보다 더 쉽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난다.
- ③ 나는 요즈음 항상 화가 난다.
- ④ 전에는 화나던 일에 요즈음은 전혀 화조차 나지 않는다.

12. ()

- ①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 ② 나는 평소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줄었다.
- ③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거의 관심이 없어졌다.
- ④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완전히 없어졌다.

13. ()

- ① 나는 평소처럼 결정을 잘 내린다.
- ② 나는 평소보다 결정을 미루는 때가 더 많다.
- ③ 나는 결정 내리는 것이 전보다 더 힘들다.
- ④ 나는 이제는 아무 결정도 내릴 수가 없다.

14. ()

- ① 나는 평소보다 내 모습이 더 나빠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② 나는 나이 들어 보이거나 호감을 못 줄 것 같아 걱정이다.
- ③ 나는 내 모습이 아주 불품없어져 버린 것 같다.
- ④ 나는 내가 추하게 보인다고 생각한다.

15. ()

- ① 나는 평소처럼 일을 할 수 있다.
- ② 어떤 일을 하려면 평소보다 더 힘이 든다.
- ③ 무슨 일이는 하려면 무척 힘이 든다.
- ④ 나는 전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16. ()

- ① 나는 평소처럼 잠을 잘 잘 수가 있다.
- ② 나는 평소처럼 잠을 자지 못 한다.
- ③ 나는 평소보다 새벽에 일찍 깨고 다시 잠들기가 어렵다.

④ 나는 평소보다 몇 시간이나 일찍 깨고 다시 잠들 수가 없다.

17. ()

- ① 나는 평소보다 더 피곤하지는 않다.
- ② 나는 평소보다 더 쉽게 피곤해 진다.
- ③ 나는 무엇을 해도 언제나 피곤해 진다.
- ④ 나는 너무나 피곤해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18. ()

- ① 내 식욕은 평소와 다름없다.
- ② 나는 요즈음 평소보다 식욕이 없다.
- ③ 나는 요즈음 식욕이 많이 떨어졌다.
- ④ 요즈음엔 전혀 식욕이 없다.

9. ()

- ① 요즈음 체중이 별로 줄지 않았다.
- ② 전보다 몸무게가 2킬로그램 가량 줄었다.
- ③ 전보다 몸무게가 5킬로그램 가량 줄었다.
- ④ 전보다 몸무게가 7킬로그램 가량 줄었다.

20. ()

- ① 나는 건강에 대해 전보다 더 염려하고 있지는 않다,
- ② 나는 여러 가지 통증, 소화불량, 또는 변비 등으로 건강이 염려된다.
- ③ 나는 건강이 매우 염려되어서 다른 일은 거의 생각할 수가 없다.
- ④ 나는 건강이 너무 염려되어서 다른 일은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다.

21. ()

- ① 나는 요즈음 성(性)에 대한 관심이 별다른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 ② 나는 평소보다 성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 ③ 나는 요즈음 성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줄었다.
- ④ 나는 성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잃었다.